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bostonkoreanrealestate.com
 Dias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ISSN 1554-6942

헬스커넥터 웹사이트 아직도 미완

헬스커넥터 진양 대표 기자회견
 오바마케어 등록 시작일인 15일
 새로운 웹사이트 가동 시작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오바마 케어를 관장하고 보험 거래소 역할을 담당하는 헬스커넥터(Health Connector)의 새로운 웹사이트 구축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11월 15일로 다가온 오바마 케어 공개등록기간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게 됐다.

헬스커넥터는 지난 21일 화요일 보스톤 소재 하버드스트리트 커뮤니티 헬스센터(Harvard Street Community Health Center)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바마케어 가입 웹사이트 구축 진행상황과 등록을 돕는 지역 네비게이터(Navigator)를 소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보스톤 퍼블릭 헬스 커미션(Boston Public Health Commission)을 비롯한 보스톤 지역의 주요 네비게이터

10여 군데를 소개하고 이들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헬스커넥터 진양 대표는 작년 웹사이트의 기술적 문제로 빚어진 문제를 언급하며 “이전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번 공개가입기간에는 그와 같은 실수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15일 새롭게 열리는 웹사이트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공개가입기간이 11월 15일로 3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진양 대표는 새롭게 구축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시범운행을 거치고 있는지,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여부는 15일이 되어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헬스커넥터를 통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와 보험이 없는 미가입자 모두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열리는 등

▶▶2면으로 계속



헬스커넥터 진양 대표가 지난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바마케어 공개가입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국 및
 중국 고객을
 잡아라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보스톤 가이드 앤 맵 출간

보스톤 관광지, 한인업소 안내 책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미국인과 아시아인에게 한식을 홍보하고 더 많은 다국적 고객들을 한인 업체로 끌어들이는 한인 경기를 활성화 목적으로 보스톤 가이드 앤 맵이 제작된다.

보스톤코리아가 기획, 제작 중인 한인 업소 안내 브로셔 ‘보스톤 가이드 앤 맵(Boston Guide and Map)’은 최고의 한식 업소와 학원, 여행사,

▶▶3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1불의 행복! 대박이벤트!!

지금, IACE 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Japan. Endless Discovery. japantravelinfo.com

IACE TRAVEL Korean Line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MORTGAGE MASTER

#1 Lender in Massachusetts!
 EXCELLENT RATES
 LOW CLOSING COSTS
 ADVICE YOU CAN TRUST

Call me today for a free pre-approval!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Exclusive Listings: 콘도

- Brookline, MA, 방 2, 학 2, 1523 sq., \$725,000
- BU, Coolidge Corner에서 도보거리
- 햇빛 잘드는 실내, 벽난로, 풀바이 책꽂이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올해도 문 닫는 한인 업소, 새로운 업소도 잇따라 등장

압구정 만나스시 롯데종합식품 폐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뉴튼에 위치한 한식당 압구정(대표 리사 최)이 아무런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폐업 간판을 내걸었다.

지난 13일 확인한 결과 압구정 식당은 '문을 닫게 되어 죄송하다'는 간단한 메모만 남겨둔 채 문을 닫은 것이다.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니 결과 고기불판 장비는 모두 수거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폐업 전 가게를 매매하는 것이 상례인데 가게를 내놓지 않은 상태로 문을 닫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한인 사회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압구정은 직접 뽑은 냉면과 강호동 백정 불판에서 구운 갈비를 출시하는 등 매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며 8년간 뉴튼에서 자리를 지켜왔다. 압구정이 문을 닫은 소식은 경기 침체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이민 사회 속 한인업체의 현실을 반영하

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 문을 닫은 건 압구정 뿐만이 아니다. 작년에 이어 문을 닫는 한인 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알링턴의 만나스시(사장 최성준, 매니저 전성애)도 올해 사라진 한인 업소 중 하나다. 일식뿐 아니라 곱창전골과 순대볶음 등의 한식으로 지역 한인들의 호평을 듣던 만나스시도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캠프리지 소재 롯데종합식품도 H마트가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 간판을 내걸었다.

이 외에도 아시나요 식품점, 우리식품(손석순 대표), 한식과 일식을 겸한 사브사브 식당인 사부야(대표 윤광현), 울스톤에 위치한 치킨집 야미와 칼라분식(주승원 대표) 등이 지난해 문을 닫거나 다른 업체에게 인수한 바 있다.

경기 침체에 휘청거리는 것은 비단 식품점과 음식점만이 떠안는 문제만은 아니다. 한인 소규모 세탁소만 해도 프레스 기계를 사용하는 대형 체인업체에 밀려 고전 중이거나 경기 침체를 맞아 업 친데 닫친 격으로 폐업의 위기에 놓여 있다.

한편 사라져가는 한인 업소들을



갑작스럽게 문을 닫은 뉴튼 소재 한식당 압구정

지켜보며 안타까워할 겨를도 없이 새로운 한인 업소들이 보스톤 지역에 속속 입성하고 있다.

만나스시가 떠나간 자리에 전주 비빔밥의 명인 솜씨를 이은 한식당 우리식당(Woori, 라현정 사장)이 들어왔다. 우리식당은 정통 전주식 메뉴로 지역 한인들과 외국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몰든에 개점한 오퍼스키친앤바(Oppa's Kitchen&Bar)도 퓨전 한

식메뉴를 선보이며 보스톤 지역의 한인 업체로 자리매김을 시도하고 있다.

사부야, 칼라분식, 야미가 작년 문을 닫은 자리엔 가주 순두부, 비빔, 서울설렁탕이 들어서 보스톤 지역의 손 꼽히는 한식당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H마트도 지난 4월 캠프리지에 2호점을 내 인근 소규모 한인 식품점의 우려가 커진 바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오바마케어 15일 이후 등록해야

▶▶1면에 이어서

록기간을 통해 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15일 이전에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공개가입기간을 잘 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헬스케어 웹 사이트 구축 완료에 관한 소식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진양 대표는 "기존에 헬스케어 웹 사이트를 통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편을 통해 공개가입기간에 대한 공지사항이 나갈 예정이니 우편을 유의해 살펴봐야 한다"고 일렀다.

영어로 보험을 상담하고 가입하는 것이 불편한 한인들을 위해 헬스케어 콜센터(877-623-6765)와 보스톤 퍼블릭 헬스케어미션 콜센터(617-534-5395)가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의 지역 네비게이터들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 보스톤 퍼블릭 헬스케어미션 디렉터 베스 베이커(Beth Baker)는 "한인 사회의 의료보험 혜택 증진을 위해 보스톤 지역의 한국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베트남 단체와 협력하여 최근 베트남 어로 네비게이터 서비스가 시작된 바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펴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Threading Threading
- 디지털 펴 & 셋팅 펴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롱 펴 Iron Perm
-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H마트, 방사능 오염의심 생선 보도, 사실 무근

한인 언론사 뉴스칸 방사능 오염 생선 판매 의혹 제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욕의 한 온라인매체가 보도한 “방사능 오염의심 생선 미국 한인식탁에” 라는 기사에 H마트 측은 “이는 허위 보도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뉴욕·뉴저지 한인언론사 뉴스칸은 지난 16일 H마트가 방사능 오염의심 생선을 팔고 있다고 보도했다. 칸뉴스 측은 “한국에서도 먹지 않는 수산

물들이 H마트가 주도한 항공화물로 주 2회 정도 매주 대량(1만 5천톤)으로 수입해 판매에 들어간다” 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어 방사능 오염의심 수산물에 “헐값에 사서 미주 동포에게 고가의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미주 동포를 우습게 아는 일이며, 동포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용의주도한 장사속의 비정함을 드러낸 뻔뻔함을 동포사회가 규탄해야 된다” 며 H마트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H마트는 지난 18일 “이는 심각하고 악의적인 사실 위조” 라

며 뉴스칸의 보도를 전면 반박했다. H마트 마케팅 매니저 라이언 정(Ryan Chung)은 “보도와 같이 제주도 수산물을 전량 수입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주 2회, 1만 5천톤 가량 수산물을 수입해 판매한 사실이 없다” 며 뉴스칸의 보도를 전면 반박하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H마트 측은 “허위 기사가 자사에 심각한 명예훼손과 손실을 주었다” 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법적 대응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을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아시아 로스쿨 학생 장학금 지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인피니티로그룹(Infinity Law Group)에서 아시아계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1,000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현재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2015년 가을학기에 입학 예정인 학생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이 장학금 제도(Asian Heritage Law School Scholarship)는 미국 내 아시아인들의 법조계 진출을 격려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예제이 주제는 “아시아 이민사회에서의 경험이 로스쿨 진학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받을 학위로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가?” 이다. 장학금 신청은 이메일(info@infinlaw.com) 혹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영주권자 이상 혹은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신분이어야 하며 부모 중 한명만 아시아인이어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및 기타 장학금 관련 정보는 인피니티로그룹(http://www.infinlaw.com/scholarship/)를 통해 알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내년 1월 12일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대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현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현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상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희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고객층 저변확대 원하는 한인 업소 광고신청 받아

▶▶1면에 이어서

식품점 등 한인업소를 한국어는 물론 영어와 중국어로 선정 소개해 한인 비즈니스 고객의 저변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 고객들은 물론 특히 최근 들어 급격히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한인업소를 소개하고 새로 보스톤을 방문하는 한국 유학생 및 방문객들에게도 한인업소를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다.

‘보스톤 가이드 앤 맵’ 은 보스

톤의 주요 관광 명소와 간단한 여행 정보를 함께 담아 약 50페이지의 핸드북 크기로 제작된다. 특히 한인사회보다는 미국 내 공항, 호텔, 관광지를 비롯해 대학, 어학원 등 다양한 장소에 집중해서 비치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공항 및 유학 박람회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3판부를 인쇄해 배포할 이 브로셔에는 보스톤 지역의 주요 한인 식당을 업소 및 쇼핑 정보 꼭 봐야 할 보스톤 명소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보

스톤 코리아에서는 브로셔의 지속성을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3차례에 걸쳐 브로셔를 배포해 확실한 한인 비즈니스 홍보대사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및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의 저변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한인업소는 보스톤코리아에 문의하면 된다.

보스톤코리아 연락처(bostonkorean@hotmail.com 혹은 617-254-4654). dyoo9146@bostonkorea.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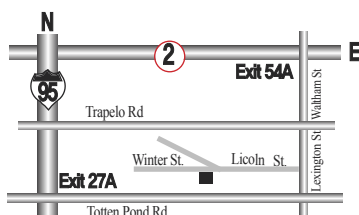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SAT Plus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ptember 6, 2014

Class	Time	
PSAT / SAT I Prep (Grade 11)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Grade 10)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Grade 9)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Grade 12)	4:00 PM – 6:0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스타트업 꿈꾸는 인재 위한 지식재산권 행사 성황리에 마쳐

**창업에 성공한 한인들의
생생한 조언과 팁 듣는
계기 마련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지난 17일 금요일 코트라 뉴욕 지재권센터(Intellectual Property Desk)에서 주최한 지식재산권 설명회 및 스타트업 행사가 캠브리지 매리어트 레지던스 인(Marriott Residence Inn)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자를 비롯한 한인 유학생, 변호사, 회계사, 슬로언 스쿨 연구원, 신규업체 대표 등 설명회에 관심이 있는 지역 한인 50여명이 참석했다. 예년보다 작은 모임으로 진행되었지만 프로그램은 작년보다 더욱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참석자들에게는 더욱 알찬 시간이 마련되었다.

특히 삼성 벤처스의 서혁진 수석투자 매니저와 한인 창업자 멜키고(CO Everywhere, Biz Dev.), 수지 라일리(Aquto), 리디아 스크로터(Angel Investor) 등이 초청 스피커로 참석해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참석자들에게 생생한 조언과 팁을

제공했다.

서혁진 박사는 “한인사회는 네트워크와 커넥션이 부족하다. 한인 법조인과 사업가들의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되어 상부상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이날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전후석 변호사는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한국은 이 시대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이끄는 국가”라며 “이 행사는 창업을 꿈꾸는 보스톤 지역의 한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소개했다. 이어 박영진 부총영사는 “스타트업을 계획하는 젊은 한인들이 이 자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해 본다”며 환영사를 전했다.

1부에서는 특허법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김명섭 주미 한국 대사관특허관은 ‘우리의 미래와 지식재산’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창업자들이 가져야 할 기발한 아이디어와 습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설리번&워체스터(Sullivan&Worcester)의 크리스틴 영, 에드윈 밀러 변호사가 스타트업의



지난 17일 열린 지식재산권 설명회에 약 50여명의 한인이 모였다

법률과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록스 앤그레이(Ropes&Gray)의 김정은 변호사는 한인들이 주로 직면하는 법적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두 자기 이익을 챙기기 바쁜 현장에서 한인들은 때마다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서 박사의 진행 아래 한인 창업자들의 진솔한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멜키고, 수지 라일리, 리디아 스크로터가 패널로 초청되었다. 이들은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며 경험자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과 팁을 나눴다.

멜키고는 “다들 창업을 하고 싶어하지만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다”며 본인의 쓴 경험담을 나눴다. 수지 라일리는 사업이라는 것이 업 앤다운(Up and Down)이 늘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마음 가짐으로 사업에 임한다고 전했다. 리디아 스크로터는 한국과 미국에서의 스타트업을 비교하며 무시할 수 없는 문화적 요소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들은 미래의 전망 있는 창업 분야로 소셜 네트워킹과 로봇, 헬스케어 등을 꼽았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

과 창업자들이 다과를 나누며 한층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되었다.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지재권 행사에 꾸준히 참석해 오고 있는 MIT 박사과정의 백성욱 씨는 “작년보다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던 것 같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함을 보였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 창업에 성공한 한인의 사례들을 찾기 어려운데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유용한 정보와 조언을 많이 얻고 가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백조의 호수’로 돌아온 발레리나 한서혜

보스톤 발레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선보일 예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한인 발레리나 한서혜가 솔로이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보스톤 발레단이 백조의 호수(Swan Lake)를 선보인다.

오는 3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공연하는 백조의 호수는 귀에 익은 차이코프스키의 선율과 보스톤 발레단 단장 미코 니시넨(Mikko Nissinen) 안무 연출로 기획되어 보스톤에서 꼭 봐야 할 공연 중 하나로 손꼽힌다.

백조의 호수에서 오데뜨와 오딜 역은 주연 프리마 발레리나가 1인 2역으로 소화한다. 솔로이스트인 한서혜 발레리나는 이번 공연에서 오데뜨와 오딜 역을 맡아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매 공연 다른 솔로이스트가 무대에 서므로 한씨가 서는 무대를 보고 싶다면 보스톤 발레단 웹사이트에서 당일의 캐스팅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보스톤 발레단은 최고의 겨울 동화 작품으로 찬사를 받는 ‘호두까기 인형’을 11월 28일부터 약 한 달간 공연할 예정이다. 한 씨는 주연급인 섀탕요정으로 처음 발레단에 캐스팅되어 이후에는 주연인 클라라 역할을 맡은 바 있다.

9살에 발레를 시작한 한서혜 발레리나는 한국 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활동을 하다 2년전 미국으로 건너왔다. 보스톤 국제 발레 콩쿠르에 출전해 당당히 1등을 차지한 한 씨는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던 미코 니시넨 단장의 눈에 띄어 보스톤 발레단의 코르도 발레(배경이 되는 무용수)로 입단, 곧 주연급 역할을 맡아 솔로이스트로 승격했다.

한서혜 발레리나가 서는 ‘백조의 호수’와 ‘호두까기 인형’의 공연 티켓은 보스톤 발레단 웹사이트(<http://www.bostonballet.org/tickets-and-performances.html>) 혹은 전화(617-695-6955)로 구매할 수 있다.



보스톤 발레단에서 솔로이스트로 활약 중인 한서혜 발레리나

ets-and-performances.html) 혹은 전화(617-695-6955)로 구매할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정보리포터 모집마감 임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9월 24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위해정보과의 해외정보리포터 모집이 오는 26일로 마감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서둘러 접수해야 기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유학생, 교민, 관련 기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해외정보리포터”는 세계 식품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는다.

미국에서는 총 1명을 모집하며

지원자격은 식품의약품 등 관련 전공자로서 식품의약품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여야 한다. 아울러 현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를 모집한다. 주요업무 내용은 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정보 수집, 보고 등이다.

응시원서 접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기사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처 : bostonkorean@hotmail.com, 617-254-4654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년 보스톤 잡지 선정 한식1위인 가주순두부 이제 얼스톤과 캠브리지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입니다.

얼스톤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주소: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할로윈, 올해 인기 코스튬 입고 두 배로 즐기자



개봉한 겨울왕국은 ‘렛잇고(Let It Go)’ 등의 영화주제가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영화관(Sing-along Theatre)까지 생겼을 정도니 그 인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다.

올해의 1등 할로윈 코스튬에는 겨울왕국의 주인공인 엘사(Elsa)와 아나(Anna), 눈사람 올라프(Olaf)의 복장이 선정되었다. 어린이용 의상이 물론 가장 많지만 어른용 의상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20에서 \$50 사이에 판매되고 있다.

슈퍼히어로 코스튬

매년 식지 않는 인기를 얻는 코스튬은 단연 슈퍼히어로 코스튬이겠다. 남자 아이들에게는 영화 속 슈퍼히어로 만한 우상이 없다. 스파이더맨과 배트맨은 남자 아이들이 매년 가장 많은 입을 의상으로 일부 할로윈 코스튬 웹사이트에서는 이미 품절된 바 있다. 여자 아이들도 캣우먼, 원더우먼 등의 슈퍼히어로 코스튬을 즐겨 찾는다.

마치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소품은 온라인 쇼핑몰(BrandsonSale.com)에서 \$40에 구매할 수 있다. 이 중 \$10는 루게릭병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고 한다.

에블라 ‘해즈맷’ 코스튬

이색적인 할로윈 의상이 매년 쏟아지는 가운데 올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코스튬은 에블라 보호장비 ‘해즈맷(Hazmat)’ 이 아닐까 싶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에블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진들이 입을 보호장비가 할로윈을 맞아 코스튬으로 재탄생한 것. 보호복과 장화, 고글, 고무장갑이 포함된 의상 세트를 \$80에 판매하는 사이트가 등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파티 의상으로써의 도를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일부 비판에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그냥 재미있자고 하는 것일 뿐이다. 딱 하루인 할로윈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할로윈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할로윈에 찾아가 볼 만한 곳, 세일럼

할로윈 분위기를 제대로 느껴려면 마녀의 도시 세일럼(Salem)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세일럼은 마녀 사냥의 진원지로서 할로윈 시즌만 되면 마녀 박물관(Salem Witch Museum)이나 각종 할로윈 퍼레이드 등의 다양한 행사가 많이 열린다.

보스톤에서 차로 30여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세일럼은 커뮤니티 레일(Community Rail)로도 다녀올 수 있다. 각종 행사 관련 소식은 세일럼 이벤트 공식 홈페이지(<http://www.hauntedhappenings.org/>)를 참조하면 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할로윈이 오는 금요일로 성큼 다가왔다. 어린이들은 저마다 멋진 의상을 차려 입고 트릭 오어 트릿(Trick or Treat)을 다닐 생각에 들떠 있으며 학생들도 코스튬 파티를 한창 계획하고 있겠다. 매년 기발하면서도 독특한 파티 할로윈 코스튬이 인기가 좋다. 보기만해도 분위기에 흠뻑 빠질 것 같은 코스튬으로 더욱 신나는 할로윈을 기대해보자.



겨울왕국(Frozen) 코스튬

할로윈에 공주가 되는 것은 많은 여자 아이들의 꿈이다. 신데렐라, 백설공주 등의 클래식한 디즈니 공주도 좋지만 올해는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겨울왕국이 단연 대세다. 작년 11월에

아이스버킷 코스튬

올 여름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Ice Bucket Challenge)가 할로윈 코스튬으로 제작되어 눈길을 끈다. 얼음 조각이 붙은 얇은 비닐을 양동이에 붙여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만립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브라질 해외봉사단, 지역 한인 도움 필요해

“조그마한 정성과 관심이 큰 일 이루는데 쓰일 것”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가난한 원주민들을 돕기 위해 브라질로 떠나는 원월드센터(One World Center) 해외봉사단이 기금 마련을 위해 보스톤에서 지난 16일부터 2주간의 펀드레이징을 시작했다.

세계 각처에서 온 20대 청년들 8명으로 구성된 브라질팀에는 한국인 학생 세 명이 참가한다. 안은지(24, 국민대학교) 학생과 장원태(24, 진주경상대학교) 학생, 김혜영(23) 학생은 9개월의 봉사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에서 보스톤을 찾았다. 이들은 윌리엄스타운(Williamstown)에 위치한 원월드센터 베이스에서 각종 워크샵과 트레이닝을 거치고 펀드레이징으로 기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브라질 바이아(Bahia)로 떠날 예정이다.

한 학기를 남겨두고 휴학을 결정한 안은지 학생은 “졸업하면 취업 준비로 바빠질 텐데 그전에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싶었다”며 프로그램에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반도체 공학을 전공한 장원태 학생은 “전기 작업을 조금 할 줄 안다.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 브라질의 가난한 주민들에게 적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빈부격차가 심한 브라질의 시골의 가난한 동네를 찾아가 5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며 농작물 경영을 가르쳐주고 어린 아이들의 교육과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브라질팀은 이를 위해 팀원당 \$3,000의 기금 마련을 목표로 하고 펀드레이징을 시작했다.

안은지 학생과 장원태 학생은 한인 마트와 업소, 교회, 가정집 등을 방문

하며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보스톤이라는 낯선 곳에서의 \$3,000 모금 달성은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다.

안은지 학생은 “주로 H-Mart앞에서 펀드레이징을 한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브라질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생각보다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적다”며 안타까워했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한인 업소들을 찾아 다닐 것”이라며 전했다.

브라질 팀은 현재 \$1,700을 모았다고 한다. 장원태 학생은 “단 1불씩이라도 모이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닫고 있다. 관심 어린 후원의 손길이 큰 일을 하는 데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인사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원월드센터는 윌리엄스타운에 베이스를 둔 비영리단체로 중미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지역으로 국제봉사단을 보내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 달 해외봉사 프로그램부터 18개월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브라질과 모잠비크, 말라위, 잠비아에서 활동하고 있다.

펀드레이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음 링크 (<http://www.indiegogo.com/projects/fight-poverty-in-brazil>) 혹은 전화(617-335-8722)를 통해 후원에 동참할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장원태(좌), 안은지(우) 학생이 브라질 자원봉사를 위해 펀드레이징을 시작했다

보스톤산악회 제 17차 정기산행 공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가 오는 11월 1일 토요일 뉴햄프셔 프란코니아 노치(Franconia Notch) 소재 마운트캐논(Mt. Cannon, 오름높이 2400피트)으로 제17차 정기산행을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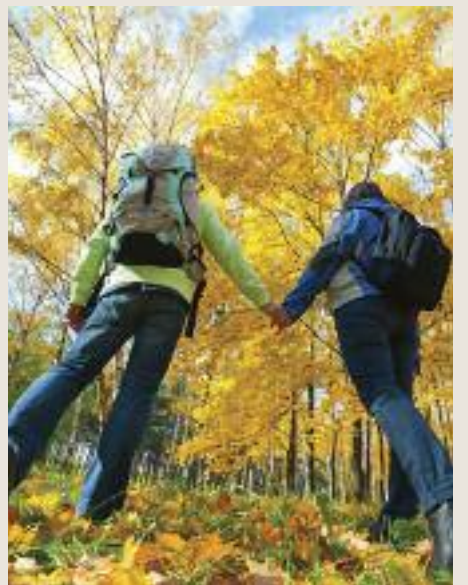
A, B 두 조로 나뉘는 이번 산행은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난이도는 5단계적도법으로 3.5다. 준비물은 배낭과 방한복, 우의, 장갑, 털모자, 스틱, 보온병 혹은 온수, 간편 중식이다. 등산화 착용은 필수다.

산행 신청은 오는 30일 목요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신청 시 원하는 조와 집결지, 차량 여부에 대해 알려야 하고 처음 산행을 신청하는 사람은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회비는 \$20이다.

산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보스톤산악회 카페 웹사이트

(<http://cafe.daum.net/boston-mountaineers>)를 통해 알 수 있다. 기타 문의는 617-869-5157로 하면 된다.

산행일정
산행일: 2014년 11월 1일 토요일
집결지: Allston 공영주차장 오전 6시 30분 / Park&Ride Exit2 of RT 93 오전 7시 15분
bostonkorean@hotmail.com



노인회 사랑방 정기모임 공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보스톤한미 노인회(회장 유영심)가 사랑방 정기모임을 오는 11월 5일과 19일(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앤도버 소재 국제선교회에서 갖는다.

한편 민주평통자문회의 보스톤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참전용사 및 노인회 보은감사초청 행사가 11월 8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픽업이 필요한 참석 희망자는 오후 4시까지 성요한 교회로 오면 버스로 이동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성대동문화 부부동반 골프대회로 열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뉴잉글랜드 보스톤 성균관대 동문회(회장 김성군)모임이 지난 18일 토요일 부부동반 골프대회로 열려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난 18일 부부동반 골프대회로 열린 성대동문화 모임

이날 골프 대회 행사는 린필드 소재 사가모어 스프링 골프 클럽에서 열렸다. 남성부 챔피언은 서재교 동문, 여성부는 한해경(강세현 동문의 부인), 근접상에는 이종국 명예회원과 서재교 동문 부인이 차지하였다.

이어진 회의와 저녁만찬은 김성군 회장 자택에서 진행되었다. 신입회원으로는 김찬웅(UMass Lowell 경영학 교수), 김태우(UMass Lowell 통계학 교수), 신용준(브리지워터 주립대학 신방과 교수), 신보경 (뉴스타부동산) 동문 등이 소개되었다.

김 회장은 “날로 발전하는 모교의 위상과 캠퍼스 소식을 전하며 인연의 지의 성균인 모두의 화합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고 전했다.

성대동문화에 대한 문의는 김성군 회장 (이 메 일 :

info@songkkimlaw.com, 전화: 781-438-6170)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로드풍류” 국악과 재즈의 만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로드아일랜드 한인회(회장 이동문)가 오는 26일 일요일 오후 5시에 브라운 대학교 살로몬 센터 (Salomon Deci Auditorium)에서 ‘2014 로드풍류’ 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 보스톤에서 공연을 갖은 바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가얏글 아우름’ 전통 국악 연주팀과 버클리 재즈 뮤지션들이 합동 공연을 선보인다. 또한 뉴욕에서 한국을 알리는 행사에 앞장서고 있는 ‘뉴욕 취타대’의 풍악한마당도 즐길 수 있다.

뉴잉글랜드 지역 많은 봉사자들의 협조와 인재들의 재능기부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발전기금마련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티켓문의는 이메일 (info@riko-rean.org) 혹은 전화(401-451-8518)로 하면 된다.

행사 일정

일시: 2014년 10월 26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브라운 대학교 살로몬 센터, 79 Waterman st. Providence RI 02912

bostonkorean@hotmail.com



오는 26일 열리는 로드아일랜드 가을 음악회



야매(X) -> 무허가(O), 암거래(O)

무허가를 뜻하는 속어로 자주 쓰이는 “야매”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 습니다.

다만, 암거래를 뜻하는 일본어 ‘야미(闇)’ 라는 말의 발음을 ‘야매’ 로 잘못 발음해서 쓰고 있 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둠을 뜻하는 ‘야미(暗)’ 역

시 같은 발음이므로 이 말에서 온 것일 거라는 추측도 있구요.

일본어를 우리말에 들여와 속어로 쓰는 경우 재미있게 들리기 때문에 더 고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야매가 아니라 ‘무허가’, 또는 경우에 따라 ‘암거래’ 라는 말로 바꿔 보세요.

서머 타임 2일 새벽 해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 인 기자 = 11월 2일 일요일 데이라이트 세이빙 (Daylight Saving, 일광절약 시간제)이 해제된다.

2일 오전 2시에 시계를 1시로 바꿔야 한다. 핸드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전자 기기는 자동으로 시간이 바뀌지만 자동차나 아날로그 시계 등은 수동으로 1시간을 앞당겨야 한다. 토요일 저녁 잠이 들기 전에 미리 시간을 바꿔 놓는 것이 편리할 듯하

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시차는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늘어나며 국적기 항공 이착륙 시간도 변경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dyoo9146@bostonkorea.com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 현 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중국 저가공세 현대로템도 당했다

매사추세츠 교통 공사 차량 입찰

중국국영회사 자회사
CNR MA의
저가 전략으로
현대에 완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중국의 저가폰 샤오미에 삼성 휴대폰의 매출이 급감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열차제조업체 CNR 저가입찰에 현대 로템이 타격을 입었다. 매사추세츠 교통공사(이하 MBTA)의 열차를 현재 제조중인 현대로템은 284량에 달하는 레드 및 오렌지 라인 열차 추가 제작 입찰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결과는 중국국영 회사의 완승이었다.

매사추세츠 교통공사 이사회는 21일 만장일치로 중국의 국영 열차제조업체 매사추세츠 법인인 CNR MA의 5억6천6백60만달러(\$566.6 million) 계약을 승인했다. CNR은 284량의 열차를 제조해 스프링필드에서 이를 조립할 예정이다.

CNR은 이번 입찰에 참가한 다른 3개업체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해 다른 업체를 따돌렸다. 현대 로템은 7억2천만불(\$720.6 million), 봄바디어는 10억 8천만불(\$1.08 billion) 그리고 가와사키는 9억 4천만불(\$904.9 million)을 제시했다.

현대 로템 등 다른 입찰 업체는 즉각 이번 입찰 결과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현대를 비롯 가와사키 등은 MBTA에게 최종 결정을 연기하고



드별 패트릭 주지사가 교통공사의 284 차량 제조업체로 CNR MA를 선정했으며 스프링필드에 조립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다른 모든 입찰 업체로부터 ‘최종 입찰’을 다시 받을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MBTA 제너럴 매니저인 비벌리 스카트는 협상의 어느 단계에서도 투명성을 요구할만한 게 없었다며 “최종입찰”을 다시 거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이 요구를 딱 잘랐다. “옥션도 아니고 가볍게 행동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입장이다.

현대 측은 한걸음 더 나아갔다. 변호사를 통해 드별 패트릭이 지난 2013년 12월 홍콩 방문 당시 CNR관계자와 만났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입찰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한 것이다.

신디 로이 MBTA 대변인은 “드별 패트릭과 데이브 교통부장관도 만남에 참가했다. 이 만남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CNR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명했었다”고 밝혔다. “이 만남의 자리에서 입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주지사는 MBTA가 이사회에 입찰 회사를 추천하는 것과 관련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대 로템은 MBTA의 수주를 받아 처음 미국에 진출했으나 약속된 기간 안에 차량을 납품하지 못해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납품한 차량에서도 결함이 발견되어 추후 수리를 거치는 등의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했다. 따라서 현대 측의 이러한 문제점도 이번 입찰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가 중국을 방문해 입찰 참여에 관심을 보인 것은 현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MGH 중국에 대형병원 건설 추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제너럴 호스피탈(이하 MGH)이 홍콩에 500에서 1000병상 규모의 대형 병원을 건설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보스톤 글로브가 밝혔다.

MGH는 최근 한 중국 한방병원 및 한 투자회사와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기본합의서는 상호 재정정보를 교환하고 홍콩 인의문을 도출하는데 협력하자는 내용이다.

MGH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협의는 기본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아직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내년 여름까지는 최종 합의까지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MGH 호스피탈 차이나라고 불리게 될 이 병원은 하버드 의대 소속 협력 의료센터들이 함께 운

영하게 된다. 그러나 MGH측은 병원 건설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투자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의사, 간호사, 연구원들은 현지에서 채용할 계획이다.

MGH를 비롯한 미국내 많은 병원들은 정부와 보험회사로부터 가격인상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오히려 더 적게 의료비용을 부과하거나 최소한의 인상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많은 병원들은 해외에서 수입원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급격히 중산층과 부유층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기관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다. 더구나 중국 정부는 의료보험 시스템을 좀더 전문화하기 위해 외국 병원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이란 점도 이 해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

hsb@bostonkorea.com

그러나 드별 패트릭 주지사도 중국 국영 기업과의 계약을 추진한 것이 향후 대통령 출마 등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는 MBTA가 인권 탄압과 근로자 학대 등의 문제가 있는 중국의 국영기업을 사업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사업을 한다는 비난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공화당 전 대표는 로버트 맥키씨는 중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중국과의 사업에 반대의견을 표했다. 그는 “주지사가 향후 대통령 출마를 노린다면 이번 결정에 대해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CNR MA 회장 지웨이 루 씨는 “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열차 제조업체다. 우리가 근로자를 확대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며 일부의 근로자 학대 우려를 반박했다.

CNR MA는 스프링필드에 6천만불에 달하는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 중국회사는 2018년까지 오렌지 라인 시범운행 열차를 전달하고 오는 2023년까지 전 차량을 양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로서는 지붕만 쳐다보는 수밖에 없다.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베이커 코클리 앞서는 등 막판 혼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 베이커 상승세
코틀리는 보합세로 정체
일부 전문가 여론 조사
박빙의 경우 민주당 후보에
숨겨진 표 더 많다 예상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고 코클리(우)를 따라잡은 찰리 베이커 공화당 후보(좌측)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 공화당 후보가 WBUR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인 마사 코클리를 앞섰다. 선거를 2주 앞둔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치열한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스톤 공영라디오 WBUR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찰리 베이커 후보는 43%를 획득해 42%에 그친 마사 코클리 후보를 1포인트 차로 앞섰다. 물론 오차범위는 4.4%로 통계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지금까지 줄곧 뒤쳐져 왔던 베이커가 선거를 2주 앞두고 역전을 이끌어 냈다는 것은 중요한 전환점으로 고려될 수 있다.

스티브 카젤라 매스아이앤시 (MassINC Polling Group)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주에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 중의 하나로 점차 베이커 후보가 약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베이커 후보의 지지율은 오르는 반면 코클리 후보의 지지율은 침체하고 있다” 고 밝혔다.

베이커 후보의 지지는 남성 유권자를 비롯 고소득자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오르고 있다. 반면 코클리 후보는 자신의 핵심 지지 계층이어야 할 민주당 유권자들에게서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카젤라 대표는 “마사 코클리의 민주당 유권자 지지율이 8월 초 66%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66-67%대에서 머물고 있다” 고 지적했다.

전형적인 민주당 텃밭인 매사추세츠를 공략하는 전략으로 베이커는 민주당 세가 강한 주요 거점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방문했다. 베이커 캠페인에 따르면 베이커 후보는 보스톤만 무려 150번을 방문했을 정도다.

베이커의 선거전략은 주효했다. 보스톤을 비롯한 주요 거점도시에서 선거초 무려 21%나 뒤지던 베이커 후보는 격차를 9%로 좁혔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카젤라 대표는 지적했다. 지난 2010년 선거에서 마사 코클리 후보는 스캇 브라운 후보에게 54-45 즉 9%차이로 뒤졌으나 2012년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는 브라운을 63-35 즉 28%차이로 눌렀었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최초의 가상 학교가 학업 성적 부진으로 보호 관찰 대상 학교가 되었다

MA주 내 2개 학교 보호 관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교육 위원회가 2개 학교에 대해 보호 관찰 조치를 취했다. 특히 2개 학교 중 한 학교는 매사추세츠 주 최초의 가상 학교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학교다.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 위원회는 지난 21일, 보스톤 그린 아카데미 (Boston Green Academy)와 그린필드 커먼웰스 버추어 스쿨 (Greenfield Commonwealth Virtual School)에 대해 보호 관찰 명령을 내렸다. 이 학교들이 보호 관찰 명령을 받은 가장 주된 이유는 재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낮기 때문이다.

보스톤 그린 아카데미와 그린필드 커먼웰스 버추어 스쿨은 앞으로 최소한 1년 동안 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학업 능력 향상을 보여줘야 한다. 실패할 경우에는 결국 학교가 문을 닫게 된다.

브라이튼에 위치한 보스톤 그린 아카데미의 교장은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발생해서도 안 된다” 고 말했다.

버추어 스쿨 관계자들은 이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위원회의 결정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버추어 스쿨에서는 재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낮기 때문이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미주 한인의 **힘** 대한민국 **뿌리**에 있습니다



하루 2번, 건강을 지키는 습관



- 기력회복
- 감기예방
- 당뇨 합병증 예방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항암효과
- 혈액순환 개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기억력 개선

홍삼정(120g) 2병 구입시
홍삼차 (50pack) 무료선물



홍삼정 120g 2병 : \$193 (2달분) 50pack

그 어떤 건강식품 보다 안전합니다.

과대광고 제품과 다양한 속설에 주의하세요.
홍삼은 장기섭취가 가능하고 무독한 상약으로 분류되어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관장 홍삼은 인삼을 증삼하여 부작용을 줄였으며 체질에 관계없이**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1일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면 그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매사추세츠 의원들 2024 보스턴 올림픽에 긍정적

조직위 올림픽 45억달러
비용 규모와 경기운영
계획 제시
현재 미 4개 도시 후보중
가장 우선적인 위치
수많은 대학 경기 시설
이용해 경기할 듯



조직위는 올림픽 개최에 결코 주민들의 혈세를 사용치 않을 것이라 밝혔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4년 보스턴 올림픽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최소한 매사추세츠 주 내에서는 점차 부정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분위기다.

2024년 보스턴 올림픽 조직위 (Boston 2024 Partnership)는 올림픽 게임을 유치하는 비용으로 약 45억달러를 추산했다. 비공개 설명회에 참가했던 매사추세츠 의원들은 올림픽 조직위의 계획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스턴 글로브는 18일 보도했다.

매사추세츠 주 하원 닉 콜린스는 “부정적이었지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변했다. 세계의 다른 도시들이 이를 개최한다면 왜 보스턴은 못하겠는가” 하고 입장을 밝혔다.

댄 오코넬 2024보스턴올림픽 조직위 회장은 45억달러 총비용 중 12억달러는 올림픽 중계권료와 주요 스폰서들의 기부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콜린스는 조직위가 올림픽과 관련 주요 시설인 스타디움, 선수촌 등을 건설하는데 결코 주민들의 세금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콜린스 회장은 “민간 자본이 이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코 올림픽을 치뤄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결코 주민들의 혈세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오코넬 회장은 45억불이 도로정비 및 대중교통시설 확충, 공공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보스턴 지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첫 공식 경기 개최 계획 설명회 자리에서 의원들은 비용과, 교통혼잡 그리고 안전 문제에 대해 집중 거론했다. 일부는 보스턴은 (올림픽을 치르기에) 충분한 시설과 잠재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적 견해를 표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설명회 이후 의원들은 보스턴이 2024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은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고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설명회에서 조직위는 보스턴의 많은 대학들의 스포츠 시설들을 올림픽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이 경기장들을 대중교통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집약된 경기진행 모델을 제시했다. 메인 경기장은 사우스 보스턴 고속도로 옆의 유희지에 건설하고 사우스스테이션까지 .5마일의 도로를 통해 접근토록 했다. 선수촌은 유메스 보스턴 인근에 건설하고 보스턴 커먼에서는 비치 발리볼을 개최하는 등의 계획이다.

조직위는 과다한 건축은 자제하고 보스턴 인근에 산재해 있는 대학들의 스포츠 시설들을 보강해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런던 올림픽을 모델로 한 것이다.

지난 6월 미 올림픽위원회는 보스턴을 비롯 LA,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를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내년 1월 최종 한 곳을 선정한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2017년 개최장소를 최종 선정한다.

보스턴 마틴 월시 시장은 긍정적이라 평가하면서도 향후 활발하고 긴 대중들의 공청회의 시작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hsb@bostonkorea.com

부실한 도로, MA주 운전자 연간 83억 달러 손해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낡고 파손된 도로와 교각 등으로 인해 매사추세츠 주의 운전자들이 손해를 보는 비용이 연간 8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운전자 일인당 1,9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국의 교통과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비영리단체 트립(TRIP)에서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의 운전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도로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있다. 트립 보고서는 도로 사정 때문에 지출해야 하는 높은 자동차 유지 비용, 자동차 사고, 교통 혼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83억 달러라는 최종 금액을 계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도로 중 약 1/5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교각 중 절반 이상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낡아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게

다가 도심에 있는 도로들은 교통 혼잡이 심하여 운전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연료를 낭비하고 있다. 도심 외곽의 도로들은 교통 사고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주의 주요 도로 중 19%가 포장 상태가 엉망이고 64%만이 평균 수준의 도로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나머지 17%의 도로가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교각 중 52%는 상당한 수준으로 손상되어 있고, 9%의 교각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각 중 43%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매사추세츠 납세자 연합의 마이클 위드머 회장은 “트립 보고서는 매사추세츠 주의 도로와 교각이 부실하여 일반 대중의 안전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매사추세츠 운전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도로가 안 좋으면 차량 유지 및 수리비, 연료비 등의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로 각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 969-4989

EXCLUSIVE








BEDFORD 지역 단독주택

(3 CEDAR LANE, BEDFORD, MA 01730)

For sale: \$ 599,000, For rent: \$ 2,350

3+ Beds, 2 Bath, 2238 sf (Lot size: 1.3 acre)
학군 좋은 Bedford지역 Single House, CUL-DU-SAC,
Private한 곳에 위치, 넓은 정원

'에어백 리콜사태' 미국차에서 일본, 독일차로 확산

■포드, 도요타, 혼다, 마쯔다, BMW, 니산

■다카다 에어백 충돌시 퍼지지 않고 폭발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제너럴 모터스(GM)에서 촉발된 대규모 '에어백 결함 리콜 사태'가 일본, 독일차로까지 번지고 있다.

리콜사태는 포드, 도요타, 혼다, 마쯔다, BMW, 니산 소유주까지 확대됐다. 해당 자동차는 다카다 에어백을 사용해 운전자와 승객 에어백이 부풀어 올라 퍼지지 않고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4명이 에어백 폭발과 관련 사망했다.

미국의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GM에서 시작된 대규모 에어백 관련 리콜사태가 독일의 주요 자동차업체 아우디까지로 확산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품질과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아우디는 이날 자사의 아우디 A4 차종에서 에어백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소프트웨어 상의 결함이 발견됐다면서 85만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에어백 결함은 GM 등에 에어백을 납품해 전 세계적으로 최소 1천200만 대 이상의 대규모 리콜사태를 몰고 온 일본업체 다카다 에어백과는 무관하다고 아우디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함은 에어백 작동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3분 정도에 결

쳐 업데이트하면 해결되는 사소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우디의 이번 에어백 결함 관련 리콜의 원인은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전 세계 자동차업체가 수천만 대에 달하는 리콜 사태를 맞은 상황에서 아우디의 리콜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자동차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는 미 고속도로 안전국(<http://www.nhtsa.gov>)을 방문 해당 차량의 고유번호(VIN)를 넣어 리콜 대상 차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리콜 대상 차량은 즉각 해당 딜러를 찾아 수리할 것을 권장했다.

hsb@bostonkorea.com

하퍼 캐나다총리 위험했을 뻔 테러범과 불과 18m 거리

무슬림 개종자 제하프 비보, 전쟁기념관에서 한 명 사살 후 국회의사당 행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캐나다 국회의사당 총기난사 사건 당시 스티븐 하퍼 총리가 범인의 지근 거리에 위치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로 알려진 무슬림 개종자 마이클 제하프 비보(32)는 22일(현지시간) 오전 10시경 의사당 건물로 난입했다.

비보는 의사당 난입에 앞서 오타와의 정부청사가 모여있는 '파러먼트 힐(Parliament Hill)'에 위치한 국립전쟁기념관에서 보초를 서던 네이션 시릴로(24) 상병을 공격했다. 피격당한 시릴로 상병은 결국 사망했다.

인근에서 비보를 목격한 건설 근로자 스코트 윌시는 비보가 "침바지에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며 "2연발 산탄총으로 들고선 인근을 지나던 차량을 탈취했다"고 말했다.

윌시에 따르면 비보는 탈취한 차량으로 의사당 건물이 위치한 '센터 블록(Centre Block)'으로 향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차량을 탄 채 의사당 입구까지 돌진한 그는 이후 총기를 난사하며 건물로 난입했다. 비보는 의사당 복도를 이동하다가 경비(국회 경비)들과의 총격전 끝에 사살됐다.

그가 피살된 장소는 하퍼 총리가 있던 곳에서 불과 18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퍼 총리는 당시 의사당 내 한 회의실에서 열린 소속 정당인 보수당 지도부 회의에서 연설 중이었다.

비보를 사살한 인물은 의회 경위인 케빈 비커스(58)로 알려졌다.

피터 골드링 보수당 의원은 "비커스 경위는 하퍼 총리가 있던 회의장 옆을 지나던 비보를 사살했다. 그는 비보의 사망 확인 후에도 공범이 있을 것을 우려해 다시 무기를 장전한 채 수색에 나서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비커스의 행동을 칭송했다.

하퍼 총리는 총격 직후 의사당 보안요원과 경찰특공대(SWAT)의 비호를 받은 채 신속하게 의사당 건물 밖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사당 안에 있던 의원과 직원 등 30여명은 안전 확보를 이유로 건물이 폐쇄되는 바람에 10여 시간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은 의자로 출입구를 봉쇄한 채 테러 위협을 막았으며 다른 곳에 있던 이들도 각기 몸을 숨겼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신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안전하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게재했다.

findlove@news1.kr

검찰, 에어백 업체 허위 안전정보 제공 조사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권영미 기자 = 미국 검찰이 대량 리콜사태를 부른 일본 에어백 제조업체 타카타를 조사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2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맨해튼 연방검찰은 타카타가 미국 교통당국에 이 에어백의 안전성을 보고하면서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말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는 미국내에서 타카타 에어백

을 장착한 차량들에서 두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미 정부가 이례적으로 미국내 700만대 이상의 해당 차량에 대해 위험을 경고한 후 나왔다.

맨해튼 연방검찰은 자동차 산업의 범죄조사를 주로 맡고 있다. 맨해튼 검찰은 3월에 도요타 자동차에 12억 달러의 벌금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 사례를 타카타 조사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의 합의금은 현재까지 자

동차 제조업체가 내게 된 가장 큰 규모의 벌금이다. 당시 검찰은 도요타가 정부 규제기관과 소비자들에게 급발진 문제에 대해 은폐·축소하고 허위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후 4년간 이끌어온 수사를 종결했다.

맨해튼 검찰은 또한 접화장치 불량으로 대량 리콜을 한 제너럴모터스(GM)도 조사중이다.

ungaungae@news1.kr

안티비(ANTIBI)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티보 개학기념 학생할인 **폭탄세일!**

\$14.99 (2년 약정시)

학생 할인

2014년 9월5일~10월31일까지
보스턴 코리아 티보가 학생 여러분께 BIG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규가격 : \$34.99

1.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14.99(2년 약정시)
2.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니어 할인(65세이상) \$24.99(2년 약정시)
3. 티보 런칭기념 특별할인 연장!
10월 31일까지 \$39.99 상품 개통으로부터 3개월간 월 \$9.99으로 가격인하 (2년 약정시, 3개월 후 \$34.99로 과금)

문의 및 연락처
보스턴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617.650.6656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O'live, OCN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매매, 구입, 임차/사업체알선

Century 21
Avon

김택운
Realtor

Cell: **(617) 678-9330**

Fax: (617) 497-9947 E-mail: tkim@century21avon.com
1675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햇스톤
속 눈썹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617-970-6038 , 617-558-8870
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am ~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미국 '나홀로 성장' 의구심 증폭

5년 회복세 미경제 시험대에 올라... 월스트리트 저널, 위기 많다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5년 간 건조한 회복세를 이어온 미국경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유럽 경기침체와 중국발 경제둔화, 다른 신흥국의 위기가 수년간 나홀로 성장을 이어온 미국의 발목을 잡은 데다 금융시장 변동성까지 커지면서 우려를 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미국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지만 주택시장 혼조, 소비 위축에 미 연방준비제도가 사회(연준)의 자산매입 종료와 해외 약재들까지 겹치면서 미 경제의 중장기 성장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스 파고의 유지니오 에일먼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미국은 자신의 힘으로 성장중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력 성장이 불가능하다"면서 "다른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시로 파이낸셜의 아돌포 로렌티 이코노미스트 역시 "좋은 실업률 현재 미국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지만 다른 지역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미국의 성장세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직면한 위기는 안팎으로 한 두가지가 아니다. 유럽과 중국경제, 신흥국들의 위기,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우크라이나 사태, 에블라 공포 등이 모두 미국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복병들이다.

십년간 글로벌 경제를 성장시킨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등 소위 브릭스



미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다른 국가 없이 자력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들은 성장세가 둔화되며 미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번달에 연준이 자산매입을 종료하고 내년 초 기준금리까지 인상하면 그 충격도 전방위적일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최근 가장 우려하는 것은 주가 급락 등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심화되는 것이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대출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소비자 신뢰와 기업 투자심리가 나빠져 투자와 신규 고용 결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 경색이 2015년 말~2016년까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0.3%포인트를 잠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주가와 채권 시장의 하락세가 일시적이면 0.15%포

인트 정도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골드만삭스는 해외 시장의 수요 약화와 강달러가 2015년 중반까지 미국의 성장률을 0.17%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강력한 한방은 아마도 유가의 하락일 것이다. 국제유가는 6월 이후 거의 20%하락한 상태다. 이는 노스다코타에서 텍사스까지 셰일가스 개발로 급격한 에너지 투자 붐이 일었던 미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나마 낮은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은 소비심리 회복에 도움을 줄 여지는 있다. 경기불안감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와 그로 인한 낮은 이자율, 그리고 낮은 물가로 인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ungaungae@news1.kr

"중국시장 영 신통치 않네"

팀 쿡 애플 CEO 23일 급방중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팀 쿡 애플 CEO가 오는 23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경제관찰망 등이 현지언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애플의 중국 내 매출 하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애플은 20일 자체 회계연도 4분기(7~9월) 실적을 발표했다. 애플의 매출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 12.4%와 12.9% 상승한 421억달러(약 44조 3350억원)와 84억7000만달러(약 8조9000억원)를 기록했다.

반면 이 기간 중화권 지역 매출은 57억7800만달러(약 6조9000억원)로 59억3500만달러를 기록한 전분기 대비 3%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기간의 57억3300만달러와는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애플의 중화권 지역 매출이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중국 소비자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을 소비하고 있다는 패턴을 과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내 경쟁 상대는 대화면의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하며 애플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잠식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경제관찰망은 "팀 쿡이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베이징 왕푸징 애플스토어 매장에서 회의



를 개최한다"며 "이번 회의는 약 한 달전부터 계획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매장 오픈 한 시간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판매직을 포함한 400명의 직원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매장 오픈 후에는 정상영업한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팀 쿡이 판매직을 포함한 직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애플이 중국 시장을 중시 하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팀쿡은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와 달리 여러차례 중국을 방문하며 중국 시장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애플은 지난주부터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중국 판매를 시작했다.

ejjung@news1.kr

작동중 초기 애플컴퓨터

9.5억원에 낙찰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초창기 제작된 애플 컴퓨터인 애플-1 중 하나가 22일(현지시간) 뉴욕시의 본햄 경매하우스에서 예상을 넘어 95만 달러(약 9억 5000만원)의 고가에 낙찰됐다. 이 컴퓨터는 9월 말 기준으로 여전히 작동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을 공동 창립한 스티브 워즈니악이 1976년 여름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소재 잡스의 집 차고에서 조립한 것으로 알려진 이 컴퓨터는 당시 50대가 제조됐다.

본햄 경매하우스는 이 기기가 30~50만 달러 사이 가격으로 낙찰될 것으로 전망했다.

낙찰자는 미시건 주 헨리 포드 박물관으로 이 컴퓨터를 박물관에 전시하려는 목적으로 구매했다.

지역 전자기기 소매상이 잡스와 워즈니악에게 애플 컴퓨터 50대를 제조해달라고 주문하기 전에는 애플 컴퓨터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전자기기 소매상은 애플-1 50대를 대당 666.66달러에 판매했다.

잡스와 워즈니악은 애플-1의 판매 성공 후 150대를 더 만들어 친구와 다른 판매상들에게 팔았다.

2012년 소더비 경매소에서는 작동 가능한 애플-1이 37만 4500달러에 팔린 바 있다.

ungaungae@news1.kr



9월 기존주택매매량 올들어 최대

(서울=뉴스1) 국제부 기자 = 미국의 9월 기존주택매매 건수가 1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전미중개인협회(NAR)는 지난달 기존주택매매 건수가 연을 기준 517만건으로 전월 대비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였던 510만건을 웃도는 것으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모기지(주택담보) 대출 금리와 고용시장 개선 등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대출 조건이 완화되고 임금 상승세가 가팔라지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등 주택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인 짐 오슬리반은 "부동산에서 회복세가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감이 꽤 지속되고 있으며 수주 전보다 모기지 금리가 낮아져 구매력이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지난달 미국의 기존주택 재고는 6% 증가한 230만채를 기록했다. 기존주택의 중간가격은 20만97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 올랐고, 판매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5.3개월로 직전월의 5.5개월보다 짧아졌다.

world@news1.kr

AT&T'기기판매

부진에 순익 하락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통신사 AT&T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예상외로 부진했다. AT&T는 매출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AT&T는 22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지난 3분기 순익이 30억달러(주당 58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의 38억1000만 달러, 주당 72센트에서 감소한 수치다.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조정 주당순익 역시 63센트로 전년도의 66센트에서 감소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늘어난 330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이 역시 시장 예상에 못미쳤다. 시장전문가들은 주당순익 64센트, 매출 332억5000만달러를 예상했다.

AT&T는 3분기에 고객들이 AT&T 스토어에서 파는 기기를 구매하는 대신 다른 데서 구매한 기기를 사용해 서비스를 신청하는 바람에 순익이 줄었다고 밝혔다.

AT&T는 아울러 올해 매출 전망을 5% 증가에서 3~4% 증가로 하향 조정했다. AT&T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1.1% 가량 하락하고 있다.

ungaungae@news1.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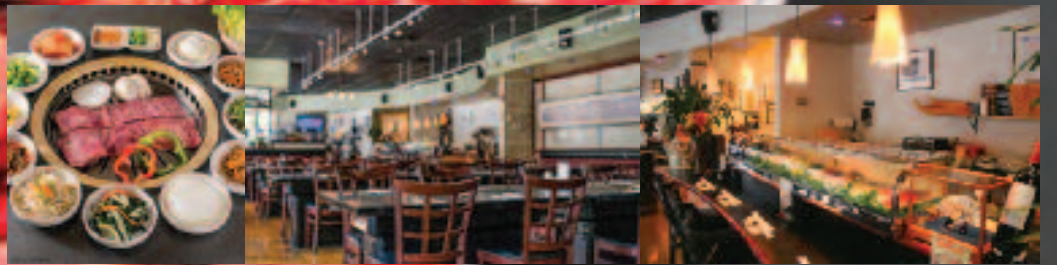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청 “김무성 개헌 언급, 실수라 생각 안해” 개헌론 강한 제동

청 핵심 관계자, 김무성 사과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 강한 톤 비판 당 대표 행보에 제동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청와대가 21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상하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개헌 논의'의 '실수' 발언과 관련 "실수로 언급했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김 대표의 발언이 나온 후 공식적 반응을 내놓지 않았던 청와대가 이같은 반응을 내놓은 것은 현시점에서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여당 내 개헌 논의 움직임에 확실히 제동을 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무성 대표께서 중국에 가서 기자 질문에 대답을 하였고, 그게 계속 보도가 되는 게 내 불찰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대표 되시

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개헌 관련 언급한 것은 기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이후 자신의 '개헌' 언급이 불찰이라고 해명한 것이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저희들은 황당하다. 그때 이탈리아 순방 중이었고 그런 만큼 알 수가 없었고 일정상 그것을 챙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국가가 장기적으로 보나온 상태로 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이 과연 개헌 이야기냐"라고 반문하면서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연금개혁 등 시급한 국정과제들이 있다"면서 "그게 빨리 국회에서 처리되어서 국민들의 삶도 나아지고 그리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희들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도 반드시 연내에 처리돼



청와대 전경,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삐걱거리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개헌은 대선이 가까워지면 안된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논의가 북돋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귀국직후인 17일 "대통령께서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참석차 외국에 가셨는데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 개헌 언급은 제 불찰로 생각하고 개헌논의 관련 언급이 크게 보도된데 대해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물러났다.

birakoca@news1.kr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Quincy College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iddlesex Community College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OCT. 24, 2014 - OCT. 30,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GET SMART TO SAVE BIG

오늘부터 H마트 스마트 카드로 똑! 소리나게 장보세요.

Smart card shoppers know how to get extra discounts. They also get special in-store savings and special entry into our unique sweepstakes thruout the year. Smart card shoppers also know you get a \$10 gift certificate for every \$1000 purchased.

Spooky SAVINGS

The **low prices** will scare you! Candy & Snacks this Halloween at **Hmart**
 할로윈데이 과자준비도 역시 H마트입니다.

Trick or Treat

Produce BEST OF THE FRESH

금토일만 세일 가격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Fuji Apple 후지 사과
\$1.48
 lb.

HAIOREUM Peeled Roasted Chestnuts
 해오름 껍질간 맛밤

3.52oz./for **\$2.50**

NONGSHIM Shin Cup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컵라면

2.64oz. x 6ea./pkg. **\$4.99**

HERSHEY'S Reese's/ Nuggets (Milk Chocolate, Almond Milk Chocolate)/ M&M's Chocolate
 허쉬스 리시스/너겟 (밀크 초콜렛, 아몬드 밀크 초콜렛)/M&M's 초콜렛

10.5 - 12.6oz. **\$2.6**
 ea./for

Fall in Love with Hmart's **CROWN SNACK FEST!**

크라उन 과자 특판전

Unmatched quality. Unbeatable prices. Korea's favorite brand on sale at Hmart.

BUY 1 GET 1 FREE

*일부 품목은 1+1이 아닌 가격행사만 적용됩니다.

<p>금토일만 세일 가격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Fuyu 단감 box \$12.99</p>	<p>Korean Napa Cabbage 배추 box \$9.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48</p>	<p>Thinly Sliced Pork Single Rib Belly 냉동 대패 삼겹살 lb. \$8.99</p>	<p>Beef Heel Meat 소 사태 lb. \$6.99</p>
<p>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삼겹양지 lb. \$7.99</p>	<p>Beef Bones 사골 lb. \$1.49</p>	<p>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for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6.99</p>	<p>Salted Yellow Croaker 자반 굴비 lb. \$5.99</p>	<p>Baby Octopus 쭈꾸미 16-25's/lb. \$3.99</p>
<p>Pollack Fillet 동태 전갈 lb. \$1.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Live Wild Eel 자연산 활장어 lb. \$10.99</p>	<p>SUHYUP Dried Pollack Fillet Strip 수협 황태채 3.52oz. \$5.99</p>	<p>HARU HARU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s. \$12.99</p>	<p>KOKUHO Extra Fancy Med. Grain Rice (Yellow) 국보 쌀 (옐로우) 15 lbs. \$10.99</p>
<p>SAMYANG Nagasaki Jjampong 남양 나가사끼 짬뽕 4.05oz. x 5ea./pkg. \$4.99</p>	<p>SAMYANG Spicy Fried Chicken Noodles 남양 불닭볶음면 4.9oz. x 5ea./pkg. \$4.99</p>	<p>GWANGCHUN Roasted Green Tea Seasoned Laver 광천 녹차김 0.71oz. \$9.99</p>	<p>Soy Sauce Set 창정원 간장 기획세트 57.48fl.oz. + 17fl.oz./pkg. \$6.99</p>	<p>CHUNG JUNG ONE Spicy Cocktail Sauce 창정원 초고추장 2.2 lbs. \$4.99</p>
<p>KOMAX Plastic Roll Bag 코맥스 위생 롤백 35cm x 50cm/ 150cnt/pkg. \$4.99</p>	<p>KOMAX Easy Clothes Hanger 코맥스 이지 옷걸이 50x50cm \$1.99</p>	<p>Dotted Soft Sitting Cushion 맹맹이 쿠션 방석 ea. \$6.49</p>	<p>ZOJIRUSHI Lunch Jar 조지루시 보온 도시락통 SL-XB20HG/ea. \$34.99</p>	<p>YOBO HOME Shabu Shabu Double Hot Pot 여보홈 샤브샤브 더블 핫팟 26cm/ea. \$8.99</p>

Smart Organic 100% DELICIOUS

ORGANICALLY GROWN, FRESHLY DELIVERED.
 H마트 유기농 제품으로 더 건강하세요.

금토일만 세일 가격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Organic Enoki Mushroom
유기농 팽이버섯
5.29oz./pkg.
\$2.4
for

김무성 "연내 처리는 '목표'...시기가 중요한가"

연금 개혁 두고 청와대와 온도차 있는 발언

공무원연금 근본개혁 불가피...공무원 애국심에 호소

군 납품비리, 국민 납득할 수준의 책임 지워야...처벌 필요

(서울=뉴스1) 여태경, 김영신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2일(한국 시간)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법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과 관련,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시기가 중요하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중진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다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왜 그것(법안 처리 시기) 때문에 자주 나와 청와대와 싸움을 붙이려고 하느냐"고도 했다.

김 대표는 당 원내지도부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는 "연내(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빨리 해야 할 일"로만 답해 '연내 반드시 처리'를 요구하는 청와대의 입장과는 온도차를 나타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 공개발언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70년대에 박봉과 봉급동결에 시달리던 공무원

의 보수체계에 대한 보완적 처우개선 대책으로 설계됐다"며 "그러나 현재 보수는 현실화됐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 평균수명이 과거 52세에서 현재 81세까지 올라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민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며 고령화 사회로 진전하고 있다"며 "이에 기금에 대한 재정압박과 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으로 더 이상 현재(공무원연금) 제도를 운영하기에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근본적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점은 당사자인 공무원 여러분도 잘 인식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에 대한 향후 10년 간 재정보전금이 무려 53조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모두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더이상 공무원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조국 근대화 주역으로 일해온 전·현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애국적인 관점에서 연금 개혁에 뜻을 모아달라

"며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연금개혁과 더불어 공무원 보수 및 인사제도 등 각종 공직자 사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공무원들이 크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접근해선 안된다"며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군 납품비리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군 납품비리가 불거지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고, 군 납품비리 차단을 위해 만들어진 방위사업청이 더 큰 비리의 온상이 됐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비리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길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당장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책임이 지워져야 한다"고 했다.

회의 후에도 그는 "국방부에서 국민이 속시원히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잘못된 것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이 빨리 국민 앞에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지난해 말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된 아동학대특례법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한민국 미래인 어린이들을 학대에서 보호하는 예산을 제대로 안 챙기는 것은 책임 있는 어른의 모습이 아니다"면서 "우

리당이 앞장서서 특례법 예산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도 '개헌'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개헌 문제는 일절 말 않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거듭 답을 피했다.

eriwhat@news1.kr

청, 공무원연금개혁 강공 예고 배경은

청 고위관계자, 이례적 기자간담회 자청
이완된 당-청관계
주도권 잡고
대통령 국정동력강화

개헌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선 공무원 연금개혁부터 당-청이 협조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당-청 관계를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그동안 새누리당과 청와대 관계자가 이달 들어 계속 잇박자를 내는 이완된 모습을 보인데 따른 반작용으로 분석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헌을 '블랙홀'에 비유하면서 강한 제동을 걸었지만, 불과 열흘만인 16일 김 대표가 '개헌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정적권 내에서는 당-청관계의 균열이 온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 나왔다.

게다가 바로 다음날인 17일 김 대표가 자신의 '개헌'언급이 불찰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청와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으며 청와대가 오히려 부담을 갖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저희들은 황당하다. 그때 박 대통령은 이탈리아 순방 중이었고 그런 만큼 알 수가 없었고 일정상 그것을 챙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왕적 대통령", 문재인 의원이 "독재적 발상"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직접 화살을 날리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개헌논의'가 가라앉고 있지 않고 있어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런 입장이었다.

결국 당-청간 계속 불협화음을 내면서 야당까지 가세하고, 그 화살이 박 대통령까지 미치게 되면서 지난 19일 김 대표, 정홍원 국무총리, 김기춘 실장이 참석하는 긴급 당·청·정 고위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얘기가 청와대 안팎에서 들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국회처리가 핵심의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 보다 당·청·정의 대표인 김 대표와 정 총리, 김 실장이 모여 공무원연금개혁을 중심으로 느슨해진 당-청 관계를 강하게 다지는 목적이 더 컸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언급했다. 이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국회내 '개헌논의'에 제동을 걸고, 당-청 관계를 중심으로 집권 2년차 박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birakoca@news1.kr

김, "대통령과 정말 싸울 생각 없다"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최근 개헌 발언을 둘러싼 당청 긴장 관계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대통령과 싸움을 붙이려 난리지만 절대 싸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예고 없이 찾아 혁신위원들에게 "중국 방문이 끝나는 날 경계심이 무너져 말 한 마디를 잘못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전혀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정말 역울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나는 '어'라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아'라고 보도하고 있다"며 "(개헌 발언을) 주워 담을 수 없고, (박 대통령과) 한 몸으로 해나가겠다"고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김 대표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선거를 생각하면 하지 못할 일이지만 선거에 큰 지장을 받더라도 우리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심정으로 의기 투합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지만, 공무원만의 문

제가 아니라 향후 10년 동안 53조원의 재정을 국민 부담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덧붙였다.

김 대표는 "선거에서 큰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있다"며 "개혁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ydkim@news1.kr

청와대 누군데?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의 이런 발언에 대해 납작 엎드리며 몸을 낮췄다. 현시점에서 청와대와 더 이상 대립각을 세우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날 제주도 국정감사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오는 길에 "(발언한 사람이) 청와대 누군데"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 측근 의원은 김 대표를 비판한 '청와대 관계자'를 가리켜 "그런 말 할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한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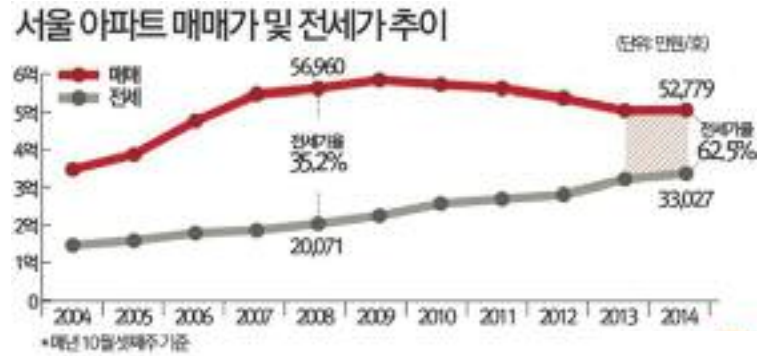
"더 심각하다", 9·1대책도 못막은 전월세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3억3천여만원...전세가격
2008년 이후 6년 연속 ↑

(서울=뉴스1) 최홍순 기자 = #전세금 5500만원짜리 옥탑방에서 사는 최모(29·강북구)씨는 최근 집주인의 전화를 받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니 전세금을 4000만원 인상해야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에서는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대출이 있다고 귀뽕해줬지만 대출이 부담스러웠던 그는 인근의 월세집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종로구에서 9000만원 전셋집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최모씨는 전세금 2000만원 인상 통보를 받았다. 다른 집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을 다녀왔으나 2년 사이 가격이 많이 올라 괜찮은 집을 구하기 어려웠고 결국 추가 대출을 받아 지난달 말 재계약을 했다. 그의 전세대출금은 6700만원으로 늘어났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또다시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이 70%를 상회하는 곳이 늘어났고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월세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매물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10월 셋째 주 기준 평균 3억302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94만원정도 상승했다. 연 평균 전세가격은 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10년 연속 상승했으며 전세가율은 35.24%를 기록한 2008년 10월 이후 6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높아진 전세금으로 전세자금대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벤처푸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은행권 전세대출이 월 1조 원을 돌파했고 전세대출 총액은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급증해 32조 8000여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전세금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22.3%에서 올해 8월 23.3%로 1%포인트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물량 등 전세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없는 데다 주택구매 심리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전세난이 지속될 것이라 진단했다. ◇중개업자들 "전세난, 예년보다 더 심각" 앞서 국토부는 9월 전월세 거래동향 발표를 통해 "전월세거래물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15% 증가했고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격도 강보합세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을 이사철과 비교해 전세난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공인중개업자들은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세 물건이 급감하면서 전세 물량 찾기가 예년보다 힘들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T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현재 나와있는 아파트 전세 물량은 아예 없고 다세대주택도 노후 주택이 대부분"이라며 "전세 임차인들이 매매 시장으로 이동해야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데 매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전세 부족 현상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금리 등의 영향으로 월세 물량은 비교적 많은 반면 전세 물량은 많이 오른 가격에 나와도 곧장 거래되는 등 품귀현상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북구 동선동 H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인근 동일하이빌 84㎡의 경우 지난해 계약때 약 2억8000만원에 전세거래가 됐는데 올해 5000만원 가량 올랐다"며 "수요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아서라도 현재 사는 집을 재계약을 하려고 해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도 없고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 "부동산침체 금리 영향...서민층이 더 고통"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 시장이 여전히 침체를 겪고 있는 데다가 금리 인하라는 변수까지 더해져 전세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통상 집주인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이 등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꺼서 주택을 구매한다"면서 "집값 상승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금리까지 인하되다 보니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져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들은 거래량과 전세가격 등 통계 지표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되긴 했지만 2년마다 재계약이 있는 전세시장이 특성상 수요자들은 2년치 변동률을 한꺼번에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가속화된 월세 전환은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택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서민층의 주거대책이 필요하다는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통상적으로 전월세 전환은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형주택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월세 전환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보증금 상환이 전제돼야 하는데 8000만원 짜리 전세집을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월세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8억짜리 전세집을 보증금 1억에 월 400만원 짜리 월세로 전환하는 것보다 수월하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은 "전세난은 통계 지표와는 별도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게 가중될 수 있다"면서 "전세난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층이기 때문에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근본 원인이 부동산경기 침체에 있는 만큼 당분간은 전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공공 임대 물량은 한계점에 이르렀고 집주인들도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월세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공급과 수요의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전세 물량 부족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dosool@yna.co.kr

면피용 전월세대책? 산으로 가는 정부 공조체제

임대연한 연장...법무부 '협약' vs 국토부·기재부 '불가'
시장 전문가들 "단기 폭등·이면 계약 등 부작용 크다"
10%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인하는 검토해볼 만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전세 임대차보호 기간을 늘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오히려 전셋값 상승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법무부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법무부는 전세임대차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10%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1일 정부가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사업자 세혜택 등 다양한 전월세 안정책을 내놨지만 세입자들에게는 당장의 효과를 내지 못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조사한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총 10만800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5.0% 증가했다. 수도권은 7만2853건이 거래돼 같은기간 12.7% 증가했으며 서울은 3만5375가

구로 14.9% 늘었다. 이중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6415건으로 16.5% 증가했다. 지방도 3만51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0.1% 늘었다. 이에 법무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월세 임차인 보호강화 개정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 연구용역을 벌였다. 하지만 법무부의 방안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반응이다. 먼저 관계 부처인 국토부 및 기재부와 의 제대로 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가 반발하는 것은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2년전에 논란이 됐던 전월세 상한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세기간을 늘리면 오히려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왕창' 올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법무

부가 검토하고 있는 임대차기간 연장 방안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계약 갱신청구권을 동시에 줘서 전세 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는 방안과 비슷하다"면서 "전세 기간을 늘리면 집주인들이 일시에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전세 기간을 늘리는 방안은 긍정적 영향보다 전셋값을 급등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검토중인 방안 가운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택 양도때 증여세와 상속세 일부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리츠나 세제감면 등의 일부 혜택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증여세와 상속세 일부를 감면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강조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임대차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면피성 방안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시장의 불안은 기본적으로 수급불균형에 있기 때문에 가격을 규제한다고 해도 안정되기는커녕 전셋값 급등과 이면계약 등 오히려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집주인은 임대료를 받지 않고 해당 주택을 팔거나 전세를 보증부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나 결국 전세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hj_jin@news1.kr

하나여행사 HANA TRAVEL



- 국내/국제 항공권 할인
- 한국, 중국, 일본, 유럽, 중남미, 하와이, 캐나다, 알래스카 등 관광 패키지

전문가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설계하세요.

617-713-4262(HANA)
email: hana.travel@gmail.com

Toll Free 1-800-368-6977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컵
매니-페디큐어
왁싱
각종 펌

웨딩헤어+메이컵
일요일도
예약받습니다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따뜻한 봄날의 시작을
헤어스타일 영이 책임지겠습니다"

남자 컷 25불 / 여자 컷 30불 / 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 / 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 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 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명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군, 대당 1200억 F-35 결함 미 설명만 듣고 넘어가

공군 엔진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방사청 "믿고 따를 수 밖에 없다"며 무시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군이 F-35A 전투기의 엔진 결함 문제를 미국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당 1210억원에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미국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 기지에서 발생한 'F-35A 전투기 이륙 중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지난달 13일 우리 측에 통보했다.

미 정부는 "엔진의 로터(회전 부위)와 스테이터(고정 부위) 사이 마찰이 전투기 표면 재질인 티타늄의 변질과 피로를 가져왔다"며 "이로 인한 균열이 과도한 마찰로 이어졌고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공군은 엔진을 재설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방사청은 "미국이 F-35A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하니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며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군 당국은 미국의 회신을 받은 지 11만인 지난달 24일 한민구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차기전투기(F-X)사업 협상 결과'를 그대로 의결했다. 방사청은 이후 지난달 30일 미국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방사청은 F-35A가 우리 군이 제시한 적합 기준 7개 항목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는데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이를 묵인했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안 의원은 "수조원이 투입되는 F-



우리 군이 차기전투기(F-X)로 구입키로 한 F-35A. (뉴스1DB)

X사업에서 방사청은 미국에 할 말도 못한 채 넘어가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해도 F-X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사청은 안 의원의 주장에 대

해 "결함이 발생한 부품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미국 정부의 공식서한과 제작사의 개선방안 설명을 통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 미달된 7개 항목에 대해서는 "필

수 작전요구성능이 아닌 업체에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며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bae@news1.kr

박 대통령 지지율 49.8%... 3주 연속 하락

리얼미터 조사 "국정수행 잘못 응답은 43.8%"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4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20일 발표한 10월 셋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취임 86주차 지지율은 전주대비 0.5%포인트(p) 떨어진 49.8%로 집계됐다.

여야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18.9%로 2주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새누리당 김 대표 15.7%,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 13.2%,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7.7%,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 7.5%,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7.1%, 안희정 충남지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각각 4.9%, 남경필 경기지사 2.6% 등의 순이었다.

여권 주자만을 상대로 한 지지율 조사에선 김무성 대표 17.1%로 14주째 선두 자리를 지켰고, 김문수 위원장 10.9%, 정몽준 전 대표 9.6%, 홍준표 지사 6.3%, 남경필 지사 4.5%,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각각 3.8%, 유정복 인천시장이 1.7%였다.

야권 주자만의 지지율 조사에선 박원순 시장이 21.0%로 10주째 1위를 유지한 가운데, 문재인 의원 14.8%, 안철수 전 대표 10.6%, 김부겸 전 새정치연합 의원 7.7%, 안희정 지사 6.4%, 정동

영 새정치연합 고문 3.2%, 같은 당 정세균 고문 2.3%, 같은 당 김영환 의원 1.7%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17일 닷새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를 상대로 유·무선전화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실시됐고, 총 응답자 수는 2500명(응답률 공개 없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ys4174@news1.kr



국산어뢰 홍상어·청상어 개발 과정서 700억 낭비

홍상어 어뢰 입수충격시험 미 실시 감사결과 드러나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우리 군이 개발한 대잠수함 어뢰 홍상어와 청상어 연구개발 과정에서 7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방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홍상어 연구개발 과정 중 충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홍상어는 2년 전 실전 배치됐으나 이후 실탄 시험발사가 계속 실패하면서 생산이 두 차례나 중단됐다.

안 의원은 "계속된 실패 원인이 입수충격으로 밝혀졌는데 개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입수충격시험'은 실시하지도 않았던 것"이라며

방사청은 전투탄 사격이 계속 실패하자 2년에 걸쳐 15발의 평가사격을 실시했고 이 때문에 약 300억원의 예산을 추가편성해서 2차 양산 시 15발의 전투탄을 더 도입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청상어 역시 감사결과 환경비평 평가가 체계개발계획서와 다르게 시행되고, 개발시험평가도 명중률을 부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청상어는 전력화 후 전투탄 사격시험에 두 차례 연속으로 실패한 후 알미늄산화는 전지를 리튬폴리머 전지로 교체해 결정했고, 200여발 전지교체비용으로 약 4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결과적으로, 청상어와 홍상어는 부실한 연구개발로 인해 약 700여억원의 예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전력 공백까지 초래한 것"이라며 "우리 군 무기체계 획득제도에 근본적인 수술이 단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bae@news1.kr



지난 2010년 7월 국산 어뢰 청상어와 홍상어가 해군 6전단 기지에서 공개됐다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샴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희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직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안셀 비타민C.E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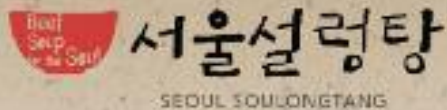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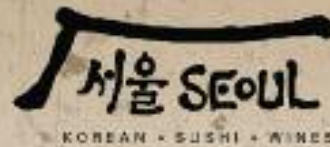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보스톤 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6 Cambridge St, Boston
617.973.6680
SeoulFoodBoston.com



한식 세계화의 종가집이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답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함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새빛 10주년 감사축제

4월교회 10주년 감사축제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 감사 음악 축제: 11월8일(토) 오후 7:00
- 감사 및 임직예배: 11월9일(주일) 오전 11:30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780 Main St., Waltham, MA 02420
NewLightKC.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양뚜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30 Avonlea Drive in Parkville, Kansas, United States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양뚜안 다블뤼 한인 성당에서는
새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45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stdaveluychurch.org
Mass: 11:30am(교중미사), 4:30p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함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함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함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새미치과 특별할인	에리끄 에스텍 특별할인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술 상담비 150 → 80 수술 예약비 120 → 60 수술 당일 특 20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킨케어 15만 스킨케어 20만 스킨케어 25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면 윤곽술 32만 → 26만 안면 윤곽술 38만 → 30만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배뇨장애 + 발기장애 + 경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까지 80만

이윤수 & 조성원 비뇨기과


보스톤코리아 617-583-2993
2014년 8월 ~ 11월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근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파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 교육 컨설팅의
처음과 끝을 함께합니다 ”**

교육관련 consulting

- 명문 중,고,대학 진학 상담 및 수속
- 방학 특별 활동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주소: 47 3rd St, Suite 201
Cambridge, MA 02141
전화: (617) 225-2200
Fax: (617) 225-2877
이메일: juliet2647@gmail.com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 비지니스, 민사 등 각종 소송 관련



조규성
민법/상법 변호사



양선영
이민 변호사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페이튼 매닝 vs 탐 브래디?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덴버 브롱코스의 쿼터백 페이튼 매닝이 NFL 통산 패스 터치다운 기록을 새로 쓰며 역대 최고 쿼터백다운 면모를 보였다.

지난 19일, 매닝은 기존에 브렛 파브르가 보유하고 있던 통산 터치다운 기록 508개를 넘어서 510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다. 매닝이 앞으로 성공하는 터치다운은 NFL 신기록으로 남게 되며 매 경기마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셈이다.

적어도 수치상으로, 통계적으로는 매닝이 NFL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으로 꼽힐 것이다. 그렇다면 매닝과 한 시대를 같이 하고 있는 최고의 라이벌 탐 브래디와 비교했을 때, 매닝이 브래디보다 뛰어난 쿼터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상 매닝과 브래디를 같이 비교하여 누가 더 뛰어난 쿼터백인지를 말하기는 어렵다. 매닝이 코카콜라라면 브래디는 펩시콜라 같은 존재다. 정답이나 오답의 문제가 아닌 개인 취향의 문제이자 관점의 문제이다.

매닝이 NFL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신이 활약하고 있는 시대에서 최고의 쿼터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도 매닝이 브래디보다 뛰어나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브래디가 수퍼볼에서 3번 우승할 때



페이튼 매닝이 NFL 통산 터치다운 신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매닝이 탐 브래디보다 뛰어난 쿼터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매닝은 1번 우승에 그치고 있다. 브래디는 선발로 출전한 시즌에 팀 승률이 5할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브래디가 보유하고 있는 0.772의 통산 승률은 매닝의 0.699보다 높다.

브래디와 매닝의 상대 전적만 보아도 10승 5패로 브래디가 훨씬 앞선다. 포스트 시즌 성적을 높고 보면 브래디는 18승 8패를 기록하고 있어 11승 12패의 매닝보다 뛰어난 쿼터백이다.

매닝의 팬이라면 몇 가지 다른 증거

를 제시해서 매닝이 최고의 쿼터백이라고 말할 것이다. 매닝은 5번의 MVP를 수상하며 역대 최고로 많은 MVP를 수상했고, 51번이라는 역대 최고의 역전승을 기록하고 있다. 매닝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당 2.07개의 터치다운도 깨기 힘든 기록이다. 무엇보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닝은 쿼터백으로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NFL 통산 기록에서는 대부분 매닝이 브래디를 앞선다. 그러나 매닝이 앞

선 분야라고 해도 매닝이 1-2위를 차지하고, 브래디가 4-5위를 차지하는 정도다. 이런 차이는 매닝이 브래디보다 NFL에 2년 먼저 데뷔했고, 46경기를 더 많이 뛰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큰 차이라고 볼 수 없다.

브래디와 매닝 중 누가 더 뛰어난 쿼터백인지를 논하는 것은 재미있는 주제지만 결론이 나지 않는 주제다. 브래디가 더 뛰어난 부분이 있다면, 반대로 매닝이 더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이

다. 어떤 기록, 혹은 쿼터백의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선호가 달라진다.

매닝과 브래디, 두 선수는 이 시대 최고의 라이벌로 경쟁하며 쿼터백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해 왔다. 두 선수 모두가 NFL의 역사를 새롭게 쓴 최고의 선수들이다.

jsi@bostonkorea.com

정철화 프로의 골프 이야기 265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t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당신은 골프를 하는데 어느 계절이 가장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고유한 맛들을 가지고 있기에 선불리 하나를 고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겨우내 웅크리고 있었던 마음이라면 봄내음이 가득한 신록의 계절이야말로 삶의 활력소가 될 것이고, 실력발휘를 하기에는 그래도 여름이 가장 알맞은 계절이고 또한 저녁 늦은 시간까지도 즐길 수 있는 장점을 생각하면 여름만한 계절이 따로 없을 것이고, 단풍의 아름다움과 함께 하는 라운딩을 생각하면 가을도 빼놓을 수 없는 골프의 계절이라 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은 계절에 라운딩을 하면서 심심찮게 겪게 되는 것중에 하나가 골프공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페어웨이에 드라

이바로 공을 잘 보내 놓았는데 근처에 가보면 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공이 낙엽 바로 밑으로 살짝 숨어버린 것이다. 시간을 더 써서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만 친선 골프를 하는 입장에서 시간을 많이 쓴다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서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기에 요즘 같이 페어웨이에 낙엽이 많이 있다면 라운딩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로컬들을 정하는 것이 좋다. 페어웨이로 간 공은 비록 공을 찾을 수 없더라도 별타 없이 그 근처에 공을 드랍(Drop) 하고 다음 샷을 하도록 한다면 무리 없이 경기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낙엽이 보기에는 좋지만 때로는 골프를 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비단 골프장뿐만 아니라 주택에서도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며칠 전 필자와 필자의 아내가 동시에 비번이었기에 마당에 쌓여있는 낙엽을 치우는 시간을 가졌다. 낙엽 치우는 일이 보통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3번 정도는 해야 겨울에도 낙엽이 손상을 받지 않고 봄을 제대로 맞이 할 수 있다. 제대로 낙엽이 치워져 있지 않으면 낙엽 위에 있는 눈의 무게에 눌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해

낙엽

서 잔디가 죽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10년동안에 여러 번 잔디를 손상시키고 나서야 깨달은 사실이다. 처음 집을 사서 낙엽을 치우는 일을 할 때는 힘이 들더라도 자기 집을 가졌다는 마음에 즐거운 마음 낙엽을 치우곤 했다. 하지만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가을에 낙엽을 치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몇 해를 지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낙엽을 치울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낙엽을 치우는 일이 설사 힘들다 하더라도



손흥민 레버쿠젠 풀타임 '평점 7.1'

(서울=연합뉴스) 온라인 팀 = 풀타임 활약으로 레버쿠젠의 승리를 도운 손흥민(22)이 평점 7.1을 받았다.

손흥민은 23일(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2014~1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C조 3차전 제니트와의 홈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2-0 승리를 도왔다.

이날 승리로 레버쿠젠은 승점 6을 기록해 AS모나코(승점 5), 제니트(승점 4)를 제치고 조 선두로 올라섰다.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 2경기 연속 골에는 실패했다. 전반 16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침투 패스를 받아 슈팅 기회를 잡았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전반 40분에는 기습적인 왼발 중거리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하지만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상대 수비의 시야를 분산하는 활발한 몸놀림으로 레버쿠젠의 득점에 기여했다.

경기 후 영국 축구 통계 전문업체 후스코어드 닷컴은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에게 평점 7.1점을 부여했다. 2도움을 올리며 승리를 이끈 하칸 찰하노글루가 8점을 받아 레버쿠젠 최고 평점을 기록했다. 찰하노글루는 후반 13분 지울리오 도나티, 후반 27분 키리아코스 파파도풀로스의 골을 도왔다.

sport@news1.kr



슈틸리케호 '캡틴' 기성용 "아시안컵 우승 결과물 얻을 것"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슈틸리케호의 캡틴 기성용(25·스완지 시티)이 내년 호주에서 열리는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 열망을 드러냈다.

기성용은 23일(한국시간) AFC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대회에 임하는 특별한 각오를 전했다.

기성용은 "아시안컵 우승을 원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고의 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은 1956년 1회 대회와 1960년 2회 대회 우승을 끝으로 아시안컵과 인연이 없었다. 반세기 동안 아시안컵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가장 최근 카타르에서 열린 2011년 대회에서는 일본과의 준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해 결승에 오르지 못하고 3위에 그쳤다.

당시를 돌아본 기성용은 "카타르에서 좋은 경기를 했지만 챔피언이

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좋은 축구를 하고도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제 매력적인 축구보다 결과를 통해 이기는 축구를 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아시안컵이 열리는 호주는 기성용에게도 익숙한 곳이다. 기성용은 중학교 시절 4년 동안 호주에서 축구 유학을 했다. 때문에 그는 영어 등 외국어에도 능통하다. 기성용은 "내게 호주는 제2의 조국 같은 곳"이라며 "어린 시절 만났던 친구들을 호주에서 다시 만난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고 웃었다.

한국 축구는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2패로 부진했다. 이로 인해 흥명보 감독이 사퇴를 하고 신임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선임되는 등 후폭풍을 겪었다.

기성용은 "최근 한국 축구가 챔피언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팬들이 많이 실망했을 것이다"며 "그렇지만 우리의 잠재력은 풍부하다. 젊은 선수들이지만 많은 경험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호주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팬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2015 호주 아시안컵은 내년 1월 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며 한국은 호주, 오만, 쿠웨이트와 함께 A조에 속했다.



범가너 21이닝 연속 무실점, 월드시리즈 첫 승 견인

(서울=뉴스1) 김지혜 기자 = 샌프란시스코가 2012년 이후 2년 만에 도전하는 월드시리즈에서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었다.

샌프란시스코는 2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코프먼스타디움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월드시리즈 캔자스시티와의 1차전에서 1회초 산도발의 1타점 2루타와 펜스의 2점 홈런, 4회초 모스의 1타점 적시타 등에 힘입어 7-1로 크게 승리했다. 이날 패한 캔자스시티는 포스트시즌 연승 행진을 '8'로 마감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매디슨 범가너는 7이닝 3피안타(1피홈런) 1볼넷 5탈삼진 1실점으로 거미손다운 호투를 펼쳤다. 2010, 2012 월드시리즈에서 2경기에 등판해 15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던 범가너는 이날 경기까지 월드시리즈 21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타선도 불을 뿜었다. 1회초부터 선두타자 블랑코가 중전 안타로 기분 좋게 출발했다. 1사 1,3루에서 4번 산도발이 우월 2루타를 터뜨려 3루 주자 블랑코를 홈에 불러들였다. 곧바로 5번 헨터 펜스가 비거리 130m의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2점포를 터뜨려 3-0으로 훌쩍 앞섰다.

이 홈런으로 펜스는 1936년 멜 오토, 2002년 제프 켄트에 이어 샌프란시스코 사상 월드시리즈에서 홈런

과 2루타를 동시에 기록한 세 번째 선수가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2, 3회 삼자범퇴로 물러났지만 4회초 다시 폭발했다. 5번 펜스의 2루타와 6번 브랜든 벨트의 볼넷으로 만든 무사 1,3루에서 7번 모스가 1타점 중전 적시타를 쳐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았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이어진 1사 2,3루에서 9번 크로포드가 볼넷으로 걸어나가 만루를 만든 뒤 1번 블랑코도 볼넷으로 밀어내기 1점을 보냈다.

5-0으로 달려나가던 7회초에도 방망이는 식을 줄 몰랐다. 무사 1루에서 2번 패니의 1타점 3루타, 1사 후 4번 산도발이 1타점 좌전 적시타로 2점을 추가했다.

캔자스시티 타선은 좀처럼 출루하지 못했다. 특유의 '발 야구'를 구사할 기회도 없었다. 7회말 2사 후 7번 페레즈가 비거리 120m의 좌월 홈런을 터뜨린 것이 유일한 득점이었다.

캔자스시티의 선발 제임스 윌즈는 3이닝 동안 7피안타(1피홈런) 1볼넷 1탈삼진 5실점으로 조기 강판됐다.

1승을 챙긴 샌프란시스코는 23일 캔자스시티와 월드시리즈 2차전을 갖는다.

hyillily@news1.kr

커쇼, 베이스볼 아메리카 선정 '올해의 선수'

(서울=뉴스1) 온라인팀 = 시즌 21승을 거둔 LA 다저스의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26)가 '베이스볼 아메리카'가 선정하는 2014시즌 올해의 선수에 뽑혔다.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21일(현지시간) "커쇼는 올해 평균자책점 1.77로 4년 연속 평균자책점 1위에 올랐다. 또 21승(3패)으로 메이저리그 다승왕에 올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커쇼의 탄탄한 수비력과 타석에서의 기여도가 올해의 선수로 선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또 52%의 타구가 땅볼이었다는 점, 초구의 70%가 스트라이크였다는 부분도 높이 평가했다.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개국 대표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499,900
Sharon, MA
3 Beds, 2 Baths, 2235sf.
Flexible floor plan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99,900
Woburn, MA
5 Beds, 4 Baths, 4238 sf.
Terrific spacious home for Large family
Anna Jung 617-780-1675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Janice Lee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749,900
Westwood, MA
3 Beds, 2 Baths, 2475 sf.
Updated kitchen, windows, roof, hot water tank etc.
이현주 401-935-3397



\$725,000
Brookline, MA
2 Beds, 2 Baths, 1523 sf.
Near BU, Coolidge Corner
Sunny 2 bedrooms
Jason Jeon 617-642-5670



\$465,000
Newton, MA
3 beds, 1 bath, 1180 sf.
Wonderful 3 bedroom single family on quiet side street
OT Kim 617-620-8242



\$359,000
Billerica, MA
3 beds, 2.5 baths, 2694 sf.
Near Commuter Rail
Nice neighborhood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429,900
Belmont, MA
3 Beds, 1 Bath, 1245 sf.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nna Jung 617-780-1675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렌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국 부동산 협회 (NAR) / 2014년 10월 / 10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국제적인 네트워크 / 20년 이상 경력 / 전문 및 신뢰 서비스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줄 승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Restaurant



\$799,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SAT Academy



\$50,000
Brookline, MA
SAT Tutoring Academy
Near many good schools
Close to Route 9 and I-95
Julie H. Lee 401-935-3397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320,000
Cambridge, MA
잘 운영되는 Japanese -
Restaurant
Beer and wine license 포함
Jason Jeon 617-642-5670

Dry Cleaner



\$180,000
Salem, MA
Downtown Salem area
Well established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299,000
Northampton, MA
Restaurant w/ liquor license
Well maintained location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179,000
Nashua, NH
One of the reputable
Asian cuisines in Nashua, NH
Jason Jeon 617-642-5670

Deli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Cafe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론트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Deli



\$99,900
Chelsea, MA
Amazing Deli with
lottery, cigarette, ATM for sale
Anna Jung 617-780-1675

Grocery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Jewelry Business



\$74,990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병원 건물 렌트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0, No.42 October 24 2014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내맘대로 만들어먹는 제철 디저트

16 핸들스(Handles)

업소탐방 259

16 핸들스(Handles)

1309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617-739-0011
http://16handles.com/

선 가든 힐링센터

지압 침 기치료

617-953-498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가볍고 상큼한 디저트로 기분전환을 하고 싶다면 브룩라인 쿨리지 코너에 위치한 16 핸들스(Handles)를 추천한다.

16 핸들스는 한국계 미국인 솔로몬 최(Solomon Choi) 씨가 뉴욕에서 창업한 프로즌 요거트(Frozen Yogurt) 체인점으로 8개의 요거트 기계에 16개의 손잡이가 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디저트 사업은 즐겁고 신나는 일” 이라고 말하는 최 사장은 동부에만 약 40여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16 가지 맛의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제공되는 이곳은 한 달에 한두 가지씩 새로운 맛이 출시되어 손님들에게 즐거운 변화를 선사한다. 이번 달은 특별히 가을과 할로윈을 맞아 피스트 펌킨(Fist Pumpkin)과 사이다 도넛(Cider Doughnut) 요거트가 새로 나왔다. 다음 달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울리는 페퍼민트 캔디(Peppermint Candy) 맛이 출시된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을 듯 하다.

브룩라인 지점의 새 매니저로 부임한 바비 페탈(Bobby Petal) 씨는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요거트로 솔티드 캐러멜(Salted Caramel)과 덩크요 쿠키스(Dunk Yo' Cookies)를 꼽았다. 페탈 매니

저는 “여름에는 상큼한 오렌지나 수박 소르베(Sorbet) 맛이 잘 나간다” 며 이외에도 다른 요거트 가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16 핸들스만의 요거트 제품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대부분 무지방 혹은 저지방 제품이라고 하니 다른 디저트에 비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겠다.

16 핸들스의 특별한 점은 코셔(Kosher) 인증을 받은 프로즌 요거트 가게라는 것이다. 이는 유대교 율법을 따르는 식품 관련 인증으로 북미 지역에서는 높은 품질의 안전한 식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그런지 코셔 인증을 받은 프로즌 요거트는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다.

이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토핑으로 많이 찾는 떡(모찌)이 없어 아쉽기도 하지만 50가지가 넘는 토핑 모두 신선하고 품질이 보증된 제품이라는 것. 무엇보다 유대인 랍비가 매번 와서 딸기를 축복(?)한다고 하니 이신통한 딸기를 먹으러 와보는 것도 이색적인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다.

16 핸들스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머세이디스(Mercedes) 씨는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다” 며 “손님들이 프로즌 요거트를 먹으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지켜볼 때 보람을 느낀다”



고 전했다.

영업시간은 월요일~목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밤 11시까지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밤 11시 30분에 영업을 마감한다.

dyoo9146@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 형 략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1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세청	617-536-7469
남서문의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00-235-6426
백배지역	888-477-6721
보스턴공립학교	617-345-7958
보스턴수도	617-635-9000
보스턴시청	617-989-7000
보스턴총영사관	617-635-4500
사우스익	617-641-2830
사회보장국	617-345-7958
성폭행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텍스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철학자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운수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617-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동맹(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베링햄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영등포고등학교동창회	802-734-2521
이화여고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고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건국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베링햄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영등포고등학교동창회	802-734-2521
이화여고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고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가톨릭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레시언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도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32-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978-869-2596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턴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777-1800
보스턴서부장로교회	978-578-6987
보스턴 성결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령교회	781-275-8233
보스턴 소망교회	781-396-1004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9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리살림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여 베델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우시우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존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버드 한인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금융/투자

인핀덴트(부영욱)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방송/에어콘/히팅

JK 플라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텀링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여 베델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우시우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존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버드 한인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드 창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금융/투자

인핀덴트(부영욱)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방송/에어콘/히팅

JK 플라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텀링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랜타,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간병인 구합니다
8pm - 8am 까지 주 5일
T. 781-883-7970 (오후 5시이후 연락)

벌링톤 물안 헤어약세사리 가게
풀/파트타임 일하실 분
T. 312-350-0159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N [매 매] 세탁소매매
건물+세탁소(33만불)
.9년간 같은 주인경영
.경쟁자 없음
.살기좋은 백인동네
.미독립기념일 1주간 문닫고 휴가
.은퇴관계로 매매
.Chatsworth, GA(Dalton근방)
T. 706-980-9510 Mr Kim

N [구인]
한식당주방장과 부주방장 구합니다
작은 동양 마켓한 한식당 주방장과 보조 각 1명씩 더 모집합니다
현재 주방장 보조 서빙 2명 디시워셔 하시는분 일하고 있음
식당테이블 17개 주 6일 근무, 주일은 쉽니다(인수가능)
Warner Robins GA I-75 EXIT 160근처
T. 615-714-8016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딜리버리 및 영업사원 모집

매사추세츠/뉴햄프셔지역 가족세탁 공장에서 의욕적으로 일할 딜리버리 및 영업사원을 모집합니다.
연령제한 없음, 미니밴 소유자.
TEL 929-600-3512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N [매 매]
슈퍼페어,알터레이션 샵
이주 관계로 급매 하고저 합니다
미드타운에 있는 고급동네이며 70년 전통있는 가게 입니다
일감이 많은 바쁜 가게 임
자세한 사항 문의는 연락 주세요
T. 404-751-8889

N [구인]
시카고 지역에서 일하실 사이딩쿠루 구합니다.
T. 847-307-1812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세탁소 팝니다. 부유한 동네 Drop-Store
관심있는 분 연락 바람
T. 857-636-2611

N [마사지구인]
만테나 빌링스에서 가족같이 일하실 성실한 마사지사 구합니다.
안전한 곳이고 숙식제공 되고 수입 보장 함.
T. 406-259-6211

N [구인]
하와이에서 제일 안전한 맛사지 가게에서 함께 일하실 아가씨를 구합니다
월수입 3만 - 5만 가능 신분 확실한 분
T. 1-808-675-1022

렉싱턴 한식/일식 식당
풀/파트타임 웨이터/웨이트레스구함
T. 781-860-0171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N [구인]
노스 다코타 인테리어 휘니시 기술자 구합니다.
인테리어 휘니시,케비넷도어, 트림, 유경험자 환영.
미네소타&노스다코다 지역 포함.
T. 952-292-6090

N [호텔직원구인]
사바나지역(Savannah, GA)
.룸서비스(여자)
.하우스맨(남자)
.오버나이트서비스맨(남자)
.게스트서비스맨(남자)
.전직원 숙박제공
시간당 \$9.50부터
주 40시간제
T. 678-689-7751

FIXALL

바이러스 치료, 데이터 백업/복구
맥OS/윈도우/리눅스 설치/복구
각종 컴퓨터 수리 및 업그레이드
홈 네트워크 설치
TEL 617-710-4952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채림, 가오쯔치 두 번째 웨딩마치 23일 한국서 비공개 전통혼례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채림, 가오쯔치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배우 채림과 중국 배우 가오쯔치는 지난 14일 중국에서 결혼식을 치른 것에 이어 23일 서울 성북구 삼청각에서 전통 혼례 방식으로 또한 번 결혼식을 갖는다.

이날 결혼식에는 양가 친지와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채림 부부는 추후 결혼식 사진을 공개해 행복의 두 번째 결혼식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앞서 가오쯔치는 지난 6월 중국 베이징 한복관에서 채림에게 한국어 노래를 불러주며

반지를 끼워주는 공개 프리포즈를 했다. 두 사람은 중국 CCTV '이씨가문'에서 부부로 호흡을 맞춘 것을 계기로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ppbn@news1.kr



'라디오스타' 박준형 솔직 발언 "나이 들어도 여자 외모 중시해"

(서울=뉴스1스포츠) 명희숙 기자 = god 박준형이 여성의 외모에 대해 솔직한 발언을 했다.

박준형은 22일 밤 11시15분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이하 라디오스타)에서 MC 윤종신에게 "과거 가슴 수술한 여자는 싫다고 하지 않았나"는 질문을 받았다.

박준형은 "여성의 영명이나 가슴은 남자인 저에게 없는 부분이라 더 멋져 보인다. 수술해서 만드는 거라면 솔직

히 저도 만들 수 있는 부위라고 생각해 그렇게 말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냈다.

그는 이어 "나이 들어도 외모는 중요하다. 기왕이면 더 예쁜 꽃의 향기를 맡고 싶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며 "예쁜 외모를 좋아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잘 맞아야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ddgreen35@news1.kr



신해철 중환자실 입원

소속사 "의식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신해철이 중환자실에서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3일 "주치의에 따르면 복강 내 장 유착 및 장 손상을 확인 후 장절제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흉부외과와 협진 하에 심막을 열어주는 응급배액술 및 세척술을 시행하고 개방복부 상태로 수술을 종료했다"고 수술 경과를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이어 "수술 후 혈압은 안정돼 혈압상승제 없이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아직 의식은 전혀 없고 동공반사도 여전히 없는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소속사는 "향후 수일 내에 추가적인 손상 부위 확인 및 열어놓은 복강을 폐복 또는 부분 폐복을 위해 추가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뇌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과의 협진을 받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 22일 오후 1시께 갑자기 심장이 정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오후 2시께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정밀 검사를 받았다. 당시에도 무의식이었으며 동공반사 및 자발호흡이 없는 위중한 상태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신해철 중환자실

, 내일이면 기적적으로 일어나시길", "신해철 중환자실, 이렇게 무너지실 분 아니란 거 압니다", "신해철 중환자실,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s0514@news1.kr



마이클 볼튼이 인정한 문명진, 투엘슨 새 싱글 가창 참여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가수 문명진이 3인조 프로듀서 그룹 투엘슨의 새 디지털 싱글 가창자로 참여한다.

최근 KBS2 '볼후의 명곡'에서 팝스타 마이클 볼튼에게 극찬 세례를 받은 문명진은 오는 24일 발매되는 투엘슨(2LSON)의 신곡 '거리에서' 가창자로 나섰다.

투엘슨 멤버들은 "처음 곡을 완성하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올린 가수가 문명진"이라고 밝혔을 만큼 '거리에서'는 진정성 있는 목소리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문명진과 잘 맞아 떨어진다는 평이다.

또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분위기와 가사를 비롯해 서정적이면서도 개성을 잃지 않는 투엘슨 특유의 편곡으로 깊이를 더해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투엘슨은 지난 7월 에일리와 함께 한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I'm in love'로 주목

받은 프로듀서 그룹이다. 이들은 동료 뮤지션과 음악 관계자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작곡 및 프로듀싱, 공연, OST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ppbn@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4년 10월 13일 ~ 10월 19일

1위
KBS2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28.8%



2위 KBS1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23.0%



3위 KBS2 일일드라마 빠꾸기등지 20.7%

- 4 MBC 주말특별기획(마마) 17.6%
- 5 KBS1 KBS9시뉴스 17.5%
- 6 KBS2 개그콘서트 16.2%
- 7 SBS 아침연속극(청담동스캔들) 14.9%
- 8 MBC MBC아침드라마(모두다김치) 14.5%
- 9 MBC 주말드라마(장미빛연인들) 14.0%
- 10 KBS2 해피선데이 13.9%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4.99에 볼 수 있는 안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 01 시간과 낙엽 악동뮤지션
- 02 손대지마 에일리
- 03 그게 나야 김동률
- 04 틈 소수, 권순일
- 05 화장 지웠어 개코
- 06 신촌을 못가 포스트맨
- 07 Home 로이킴
- 08 당신만이 광진언외 2명
- 09 소격동 아이유
- 10 보고싶어 걸스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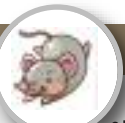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1	9			2				
					1			
5		7	3				8	1
8			4	9			5	6
			5	3	6			
9	5			1	2			7
7	8				4	9		2
			2					
				5			7	8

10월 26일 - 1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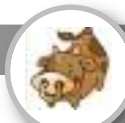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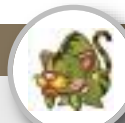
쥐띠 | 앞에서 끌어주고

● 운수: 가까운 곳에 있는 답을 두고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위부터 살펴보세요. ● 금전: 가능성은 있으니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부단한 노력을 지속하면 이득이 따릅니다. ● 애정: 혼자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힘든 길일수록 둘이서 함께 가는 이가 있어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8, 31일 길일. 26, 2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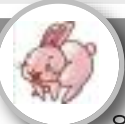
소띠 | 사태파악을 제대로

● 운수: 어려운 벽에 부딪치게 됩니다.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후회가 몰려올 것입니다. ● 금전: 좋은 물건을 보면 사고 싶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과소비를 할 수 있으니 아예 쇼핑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순간적인 감정으로 마음의 있는 말을 다했다가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9, 1일 길일. 27, 30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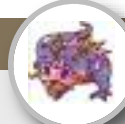
범띠 | 두 배의 수익을

● 운수: 지금의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야만 미래에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거듭해오던 일들이 차츰 해결됩니다. ● 금전: 그동안 부지런하게 일한 것에 대가가 따라줄 것입니다. 평소보다 두 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애정: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아름다워 보이고 그 어떤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6, 30일 길일. 28, 31일 주의.



토끼띠 | 내 편을 들어주는

● 운수: 이 세상에 내편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드러내고 보이지 않아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습니다. ● 금전: 거래에 있어서 유리한 때입니다. 싸게 산 것을 이윤을 남기고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7, 31일 길일. 26, 2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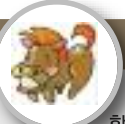
용띠 | 병 주고 약주는

● 운수: 정신이 없이 일하다보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세요. ● 금전: 문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처리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살펴야 합니다.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애정: 병 주고 약주는 격입니다.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가도 말 한마디에 다시 마음이 동하고 흔들립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8, 1일 길일. 30, 3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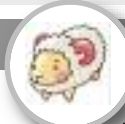
뱀띠 | 단단히 마무리 지어야

● 운수: 단단하게 매듭을 지어야 잘 끊어지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단단히 마무리 지어야 하겠습니다. ● 금전: 급하게 하는 행동은 이익을 손해로 바꿔놓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세요. ● 애정: 이제는 정말 끝내려고 결심을 하는데 상대가 간절하게 사과를 하니 다시 흔들리면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6, 29일 길일. 28, 3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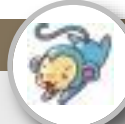
말띠 | 좋은 찬스가 주어지는

● 운수: 준비를 철저히 해둔 사람에게는 재앙도 비켜간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세요. ● 금전: 안정된 운세로 수입이 증가합니다. 금전적으로 좋은 찬스가 주어지는 행운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 애정: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유 불문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주도록 하세요. 90, 78, 66, 54, 42, 30년생은 27, 30일 길일. 29, 1일 주의.



양띠 | 잠시 생각을 접어두도록

● 운수: 생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결은 되지 않고 더 미궁에 빠집니다. 지금은 잠시 생각을 접어두도록 하세요. ● 금전: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이득이 되고 호박이 널궂게 굴러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 애정: 다시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만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우와 예의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6, 31일 길일. 30, 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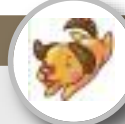
원숭이띠 |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 운수: 집안에 있기보다는 밖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 금전: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됨으로써 수입이 늘게 됩니다. ● 애정: 처음에는 그리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관계가 관철이될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9, 1일 길일. 30, 3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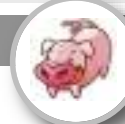
닭띠 |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 운수: 약간의 무리로도 탈이 나기 쉽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도 자신의 체력에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작은 돈은 들어오지만 큰돈이 나갈 일이 있습니다. 금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기기 쉽습니다. ● 애정: 헤어지는 것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가 맞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라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8, 29일 길일. 26, 1일 주의.



개띠 | 전화위복의 상태로

● 운수: 호랑이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위기가 오더라도 정신을 차리면 도리어 전화위복의 상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 금전: 너무 실리를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융통성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 애정: 깨끗이 정리하지 아니하는 미련이 있고 계속해서 가지니 자꾸 신경이 쓰이고 마음에 걸리니 고민만 깊어집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6, 28일 길일. 27, 1일 주의.



돼지띠 |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 운수: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충분히 의논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적게 가져서 마음이 더 가볍고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 애정: 모든 것은 만남에서 출발합니다. 문제는 그 만남의 결과가 어디로 흘러가느냐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7, 1일 길일. 28, 30일 주의.

윤진이, 전진 열애설 "에릭이 소개? 원래 알던 사이"

(서울=뉴스1스포츠)온라인팀 기자 = 윤진이, 전진 양측이 열애설을 부인한 가운데, 한 누리꾼의 목격담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1일 윤진의의 소속사는 "윤진은은 현재 친구들과 싱가포르에서 여행 중이다"면서 "본인에게 전진과 싱가포르에서 만난 적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신화 전진 매니저 역시 "현재 베트남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언제 귀국할지 정확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두 사람이 올해 초 한 모임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최근 싱가포르 여행을 함께 떠났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일 '진짜 대박이예요. 전진과 윤진이'라는 제목으로 한 성지글이 게재됐다. 해당글에는 '제 친구가 싱가포르에 갔는데 전진과 윤진이 다정하게 걸어가더라고요. 제 친구가 "전진과

윤진이" 라고 소리쳤더니 갑자기 떨어져서 걸었대요. 에릭이 '연애의 발견' 윤진과 같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소개시켜 준 것 같아요. 사귀는 건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전진 측은 "전진에게 열애설에 대해 확인한 결과 윤진과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지만 열애는 아니라고 한다. 에릭이 소개시켜줬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다"고 열애설을 부인했다.

star@news1.kr



클라라, 속옷만 입고도 당당할만한 몸매



(서울=뉴스1스포츠)권수빈 기자 = 클라라 언더웨어 화보를 공개했다.

클라라는 23일 공개된 게스 언더웨어 화보에서 몽환적인 눈빛과 프로페셔널한 모델 포즈를 선보였다.

그는 청순한 표정, 긴 생머리와는 다른 반전 몸매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평소 육감적인 몸매를 과시하며 섹시 아이콘으로 등극한 클라라는 이번 화보에서도 섹시미를 유감 없이 보여줬다.

클라라는 솔리드 컬러의 심플하고 세련된 언더웨어부터 호피 패턴이나 광택이 가미된 소재 등 관능적인 무드의 언더웨어까지 다양한 속옷을 입었다. 뚜렷한 이목구비에 완벽한 몸매가 더해져 남녀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는 평이다.

클라라 겨울 언더웨어 화보는 나일론 11월호에 실렸다.

ppbn@news1.kr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꾸준한 관객몰이.160만 목전

(서울=뉴스1스포츠) 이경남 기자 = '나의 사랑 나의 신부'가 16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감독 임찬상)는 지난 22일 4만8460명 관객을 동원, 누적관객수 159만1695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지난 8일 개봉 첫날부터 꾸준히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흥행에 가속을 보이고 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24년 전 개봉한 배우 박중훈과故 최진실 주연의 동명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한 영민(조정석 분)과 미영(신민아 분)의 달콤 살벌한 신혼생활을 다룬 로맨틱 코미디다.

한편 이날 박스오피스에는 2만9941명 관객을 모은 '드라큘라:전설의 시작'이 2위, 2만3141명 관객을 동원한 '제보자'가 3위를 기록했다.

lee1220@news1.kr



천지보살

운명
사주
궁합
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i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김씨의 뿌리(18)>

김씨와 허씨 연합하여 곽씨의 전횡을 물리치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김해 김수로왕 남릉

곽광(霍光)은 표기장군 곽거병의 배다른 동생으로 하동군 평양현(지금 산서성 임분) 사람이다. 일찍이 그의 아버지 곽중유는 현리 신분으로 한무제의 매부 평양후 집에서 잡일을 거들고 있었다. 그는 평양후 집의 시녀 위소아와 정을 통해 곽거병을 낳았지만 현리 임가를 마치자 하동군으로 돌아가 새 장가를 들어 곽광을 낳았다. 곽거병은 자신의 생부가 곽중유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흉노로 출정하는 길에 하동군을 지나게 되자 곽중유에게 사람을 보내 그 아버지를 비로서 만나게 되었고, 아버지를 위해 많은 땅과 집, 노비를 사주고 떠났다. 그리고 회군하는 길에 10살 된 이복동생 곽광을 데리고 장안으로 돌아왔다.

곽광은 10살의 어린 나이 때부터 한무제를 모시기 시작했는데 20여년 동안 실수가 없어 무제에게 각별한 신임을 받고 중용되었다. 곽광은 침착하고 냉정하며 매사에 신중한 사람이었다.

한무제 말년 치세 때는 김일제와 더불어 한나라 조정의 쌍벽을 이루고 있었다. BC 87년 한무제가 중병이 들어 죽기 직전에 그는 곽광, 김일제, 상관결, 상홍양 네 사람을 불러 자신의 뒤를 이을 8세 밖에 안된 어린 태자 유불릉(효소제: 孝昭帝)의 후사를 부탁하며 곽광을 대사마 대장군, 김일제를 거기장군, 상관결을 좌장군, 상홍양을 어사대부로 임명하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

네 명의 고굉대신 중 김일제는 한무제가 죽은 지 1년 후에 세상을 떠났고, 상관결, 상홍양은 곽광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되어 모두 처형되었다. 권력을 나누어 받았던 4명 중 3명이 사라지자 천하의 권력이 모두 곽광과 곽씨 문중으로 쏠리게 되었다.

BC74년 소제(昭帝)가 21세의 나이로 병사하자 대를 이을 후손이 없어서 한무제의 손자 창읍왕 유하가 후사를 잇게 되었다. 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유하는 떡잎이 되기도 전에 말썽부리는 것이 줄을 이었다.

황제로 즉위하려고 창읍에서 장안으로 오는 중에도 수레에 여자를 감추어 실었고, 소제(昭帝) 장례 때도 곡을 할 때 목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불성실하였을 뿐더러 그가 데려온 200여명 수종들의 행패 역시 도가 지나쳤다. 창읍왕은 즉위한 지 27일만에 곽광이 앞장서서 폐위시켰다.

이제 누구에게 제위를 계승시키는 것이 힘들었는데 당시 황족 근친들은 죽거나 죄를 지어서 줄줄이 축출당했기 때문에 적절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

당시 광록대부로 있던 병길(丙吉)이 한무제의 증손 유병이(劉病已)를 추천하였다. 유병이는 원래 한무제의 태자 유거(劉據)의 손자였다. 강충과 망하라 형제들이 결탁하여 무고의 난을 일으켜 유거와 그의 식구들이 모두 살해당했고 유병이는 태어난 지 몇 달밖에 안되었지만 강보에 쌓인 채 감옥에 갇혀버렸다.

마침 감옥을 관리하고 있던 정위감 병길(丙吉)은 태자 유거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황증손 유병이의 처지를 매우 동정하였다. 여자 죄수 두 명을 골라, 돌아가며 황증손에게 젖을 먹이게 해주었다. 황증손은 갖가지 위험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매우 허약했고 여러 차례 중병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기곤 하였다. 병길은 자신의 돈으로 황증손에게 음식과 옷, 약을 대주고 매일같이 찾아가 돌봐주었다.

여러 해가 지나고 황증손이 감옥에 있게 되고 아직 이름도 없자 병길은 황증손의 병이 다 나왔다는 의미로 유병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BC87년 한무제는 죽기 직전에 유병이의 상황을 보고받고 깨닫는 바가 있었다.

천하에 대사령을 내리고 유병이를 석방시켰다. 병길은 유병이를 그의 외할머니 정군(貞君)과 외삼촌 사공(史恭)에게 데려다 주었다. 얼마 후 무제는 황증손 유병이를 액정(掖庭)에 머물게 하고 조정에서 생활비를 대도록 하였다. 액정은 후궁과 비빈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환관이 관리하고 있었다. 당시 액정령이던 장하(張賀)는 다행히도 과거에 태자 유거를 모시던 사람으로 태자의 은덕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사비를 들여 황증손에게 시경, 논어, 효경을 가르쳐 성취가 있게 되었다. 황증손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장하는 사방으로 신붓감을 찾았지만 명문세가에서는 이미 몰락하고 기대할 바 없는 황증손에게 딸을 주려 하지 않았다.

마침 장하의 환관 동료 중에 허광한(許廣漢)이라는 환관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허평군(許平君)이라는 예쁜 딸이 있었다. 장하가 허광한을 청해 주연을 베풀고 황증손과 허평군을 짝 지을 것을 제의하니 허광한이 승락하여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

BC74년에 황증손이 병길의 추천으로 예상치 못하던 황제가 되자 그는 이름을 유순(劉詢)으로 바꾸고 즉위하니 한나라 9대 효선제(孝宣帝)로 한나라를 중흥시킨 명군이었다.

선제는 황제로 즉위하면서 조강지처인 허평군을 황후로 책봉하려 했지만 대신들은 선제가 즉위하는데 공이 컸던 곽광의 딸 곽성군(霍成君)을 황후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선제는 외척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의식해서 대신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강지처 허평군을 황후로 책봉하고, 둘 사이에 태어난 유석(후일의 원제: 元帝)을 태자로 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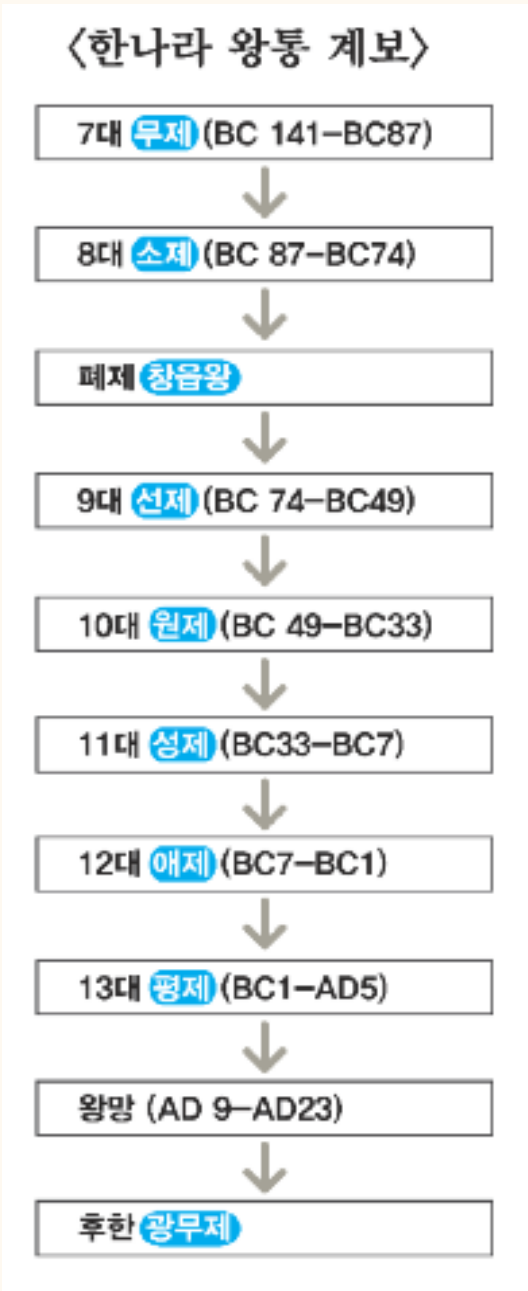
선제는 즉위해서 BC68년 실권자 곽광이 병사할 때까지 5년 동안 이름만 황제였지 모든 실권은 대장군 곽광의 손에 있었다. 선제는 측근 세력이 없었으므로 곽광의 명을 따라야만 황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곽광의 처 현아(顯兒)는 마침 임신 중이던 황후 허평군이 병이 걸린 기회를 틈타 여의(女醫) 순우연(淳于衍)을 매수해서 허평군을 독살해버렸다. 허평군의 뒤를 이어 현아의 딸 곽성군이 황후가 된 것은 물론이다.

BC68년 세도 대신 곽광이 병사했지만 곽씨들의 전횡은 그대로 계속되었다. 효선제는 조정 대신 위상(魏相)과 독살로 사망한 허평군의 아버지 허광한(許廣漢), 김일제의 동생 김륜(金倫)의 아들 도성후(都成侯) 김안상(金安相)을 중용하고 곽씨들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허광한, 김안상이 허황후 독살의 주범이 곽광의 처 현아의 소행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현아는 죽임을 당하고 곽성군은 황후 자리에서 쫓겨났다가 자살하였다. 곽씨 일파가 제거되고 조정의 실권은 김씨와 허씨에게 쏠리게 된다.

사학자 문정창 씨는 김안상의 4대손 김탕(金湯)이 후한 광무제의 보복을 피해 김해로 도피하여 금관가야의 시조 김수로 왕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김수로 왕의 왕비 허황옥의 출자가 허광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 왕통 계보

Hanca Education Center
한카교육원 교육프로그램

* 한카교육원은 간이식당과 대형 스크린을 갖춘 멀티미디어룸을 포함
9 개의 강의실을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캐나다 최고의 교육도시
문화중심 도시 몬트리올!!
세계 최대 이중 언어 도시
몬트리올!!


북미의 파리, 몬트리올에서 불어공부하자!

몬트리올 유학은

- 불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환경에서 수준높은 교육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한카교육원의 유학프로그램은 북미한인언론인협회(KAFA)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몬트리올 유학 프로그램의 특징



초중고 불어학교 / 영어학교 조기유학

- 불어학교 / 영어학교 또는 영.불어 통합학교 중 선택
- 숙소비, 학원, 학비, 홈스테이 비용 포함 관리 유학 연간 \$39,000(CAD)

불어/영어 단기유학

- 현지 공립학교에서 교육

tolerant friendly

불어 & 영어 여름 캠프 2015 June

- 몬트리올의 여름을 즐기며 배우는 불어







성인 불어/영어 직업교육(이후 이민가능)


- 부모 유학비자로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 교육가능(EMSБ 교육청)

성인 불어/영어 연수

- 불어 교육청 / Language school / etc.

McGill University 입학준비반

- 세계 10대 대학, 저렴한 생활비와 학비






TALK 킷독으로 빠르게 상담하세요
ID : hanca3333

전통의 힘!! 새로운 터!! 한카교육원이 전문과 혁신적으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카교육원에서는 조기유학, 영어, 불어, 수학, TEFAQ 등 최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33 Boul. Cavendish Suite 100, Montréal Québec, Canada H4B 2M5
한카 교육원 http://hancastudy.com

 **CÉH HEC** École de Langues/Mathématiques
Language/Mathematic school
tel: 1.514. 600.3444
070.4498.1106
hancastudy@gmail.com



한담객설閑談客說: 봉황의 깊은 뜻은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갑자기 날이 차졌다. 깊어가는 가을이니 놀란 일도 아니다. 때가 되면 날은 차가워지는 법. 자연의 이치일테지만, 성큼 다가선 추위에 가슴이 철렁한다. 집마당 낙엽 여나쁜 봉지를 긁어 모았다. 열대여섯 봉지를 더 모아 버리고 나면 가을은 간다. 떨어져 쌓인 낙엽을 즐기고 싶어도 옆집 눈치에 그러지도 못한다.

7080세대라면 기억할 법한 노래가 있다. 투코리안즈란 건장한 두 청년이 나와 부르던 노래다.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았더니~' 소리가 우렁찼는데, 청년들의 목소리를 연어 뒀다. 현대, 막상 첫 구절은 생각하는데, 다음 구절은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다. 입안에서만 돌돌 구른다. '바람부는 날이면 언덕에 올라' 목청껏 노래했더니, 그 힘이 기억도 추억도 모두 데려갔나 보다. 오동

뉘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가을밤에 소리도 없이 데려갔다는 말이다. 투코리안즈 멤버의 이름이 김도향이던가.

= 중국인들이 시를 무지 사랑한다고 들었다. 입에서 술술 시가 읊어져 나온다고 했다. 놀랍고 신기하다고도 했다. 애들이나 어른이나 모두 시를 외고 있으니 말이다. 연암 박지원선생은 열하일기에서 이유를 쉽게 설명했다. 한문은 읽고 쓰기에 어렵다. 그러니 먼저 귀로 듣고 외을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줄줄 외고 있다는 거다. 눈은 까막눈인지 몰라도 듣는이에게는 모두 문자깨나 읽은 듯 싶다는 말이다. 역시 연암선생의 혜안이다. 하긴 제 나라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이다.

같이 일하는 중국 친구가 있다. 족자를 그

의 데스크옆에 걸었다. 한시漢詩이므로 얼핏 보기에 반갑지만, 겁이 났다.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까 걱정했던 거다. 하지만 곧 눈에 익은 글귀라는 걸 알았다. 마지막 절만 눈과 귀에 익었던 거다. 그 중국친구도 이 시를 읽어낼 수 있는지 그건 알 수 없다. 읽을 수 있으니 족자를 걸었겠지.

백일의산진白日依山盡, 황하입해류黃河入海流

육궁천리목欲窮千里目, 갱상일층루更上一層樓

낮의 해는 뉘엿뉘엿 산 넘어 지고, 황하는 바다로 흘러드는 구나

천리를 바라보고 싶은 마음에, 누각의 한 계단을 더 오른다네.

박대통령에게 중국 시진핑 주석이 선물했다는 시이다. 글은 좋은데, 뜻에 이런저런 말들을 붙였던 모양이다. 글씨, 내게는 큰 감동은 없다. 봉황의 큰 뜻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고수끼리 주고 받는 글귀에 말귀는 알아 들을 수 없다.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는데, 알고자 하지도 않는다. 차라리 가을인지라 이 시는 어떨까 모르겠다. 몇자 첨언했다. 오동뉘이 떨어지면 더욱 가을이 깊어가는 줄안다. 봉황의 깊은 뜻은 몰라도, 오동뉘이 지는 뜻은 안다는 말이다.

'산승山僧은 날짜를 꿈은 줄은 몰라도, (오동뉘) 한 잎 지면 천하에 가을이 온 줄 안다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11)

신영의 세상 스케치

470회

남편보다 더 어려운 큰아들 녀석...

덩치로 보면 아저씨가 다 된 녀석을 아직도 엄마는 자식이라 아이 같이 여기는 것이다. 가끔 딸만 넷을 키우셨던 내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무심결에 기도처럼 하는 말이 있다. '엄마, 엄마는 이런 느낌 잘 몰랐지요?'하고 말이다. 그것은 덩치 큰 두 녀석이 엄마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함께 걸을 때면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할 아들 가진 엄마의 든든함을 오빠나 남동생이 없었기에 내게는 더욱 절실한 느낌인지도 모르겠다. 누구나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애뜻함이랄까 아니면 부러움이랄까. 뭐랄까, 친정에서 막내로 자라 별 어려움이 없어서일까 내게는 오빠나 남동생이 없는 것이 늘 부러움이였다.

처음 딸아이를 낳았을 때의 섭섭함이 내게는 있었으니 말이다. 시어머님께서 손녀딸을 기다리셨다. 우리 집은 딸이 귀하니 딸을 낳으면 좋겠다고 첫 아이를 낳는 내내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 무렵 가깝게 지내던 선배 언니 둘이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아들을 낳은 것이다. 내심 나도 아들을 낳았으면 하고 기도를 얼마나 했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첫 아이를 시어머님이 바라시던 딸아이를 낳았다. 사실, 어찌나 섭섭한 마음이던지 엄마의 이 마음을 딸아이가 들으면 많

이 섭섭해 할지도 모를 얘기가. 하지만 아이를 갖고 날기까지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첫 아들이기를 바랬었다.

그때 우리 또래의 친구들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 결혼 후 아이를 하나만 낳겠다는 시대였다. 그런데 정작 내 남편은 결혼 후 아이를 다섯이나 낳자는 것이다. 시어머님의 말씀에 따르면 남편이 어려서부터 아이를 무척이나 좋아했다는 것이다. 나는 나 나름대로 결혼을 하면 아이를 하나만 낳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 후 남편이 다섯을 낳으면 좋겠다는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물론, 결혼해 아이를 일찍 낳아 키울 생각이라면 하나보다는 둘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남편이 아이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도 다섯은 무리이고 아직은 젊고 건강하니 셋은 낳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딸아이를 낳고 연년생으로 두 녀석을 낳아 삼 남매를 키우게 되었다. 이렇게 정신 없이 키우다 보니 훌쩍 세 아이가 모두 대학을 졸업하게 되니 가끔 남편과 함께 둘이서 딸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피식 웃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딸도 하나 더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다. 그

것은 남자 형제보다는 여자 자매가 나이가 들수록 친구처럼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남자 형제는 다른 식구(동서지간)가 중간에 있으니 좋든 싫든 거리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던가. 여하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부러움은 늘 있기 마련인가 보다.

우리 집 큰 녀석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법대(School of Law)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어려서부터 누나인 딸아이와 동생인 막내 녀석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서너 살이 되어서 엄마 뒤를 따라다니며 부엌과 화장실의 불을 끄고 다녔었다. 대여섯 살 정도에는 엄마가 사평을 가면 무엇을 사고 돈은 얼마를 내는지 늘 유심히 살피는 아이였다. 그리고 열 살이 되어서는 집을 사고파는 일(부동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해 주말에 시간이 나면 아빠에게 집 구경 가자고 졸랐던 아이이다. 오죽하면 가깝게 지내던 부동산을 하던 지인도 가끔 이 아이에게 동네의 부동산 매물을 물어보았을까 말이다.

몇 년 전의 일이다. 큰아들 녀석이 하이스쿨 다닐 때쯤의 일이니 이제는 꽤 오래된 얘기가. 둘이서 동네의 쇼핑몰에 가게 되어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세일하는 신발을 하나 보

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 녀석 하는 얘기가 '엄마, 다른 신발가게도 한번 다녀와서 사면 어떨까요?'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더 재미있다. '애는 엄마에게 딱 맞는 신발인데 다른 곳에 다녀오는 동안 팔리면 어떡하고?' 하고 말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 '엄마, 그럼 내 것이 아니려니 하면 되지요.' 한다. 아들이 엄마에게 할 말인지 엄마가 아들에게 할 행동인지 하고 며칠을 생각해 머물렀었다.

이 모습이 우리 집 살아가는 풍경이다. 지금은 세 아이 모두 공부하고 일하느라 밖에 나가 살아 우리 부부 둘만 있어 집이 행해졌다. 모두가 바쁘니 자주 만나기도 쉽지 않거니와 가족이 얼굴 마주 보고 밥 한 끼 함께 먹기도 쉽지 않으니 삶이 점점 여유가 없어진다. 여하튼, 남편에게 아내인 나는 가끔 투정도 부리고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때때 부러워하기도 한다. 그런데 큰아들 녀석만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정리정돈을 하듯이 삶에서도 나를 추스르게 한다. 아직은 남편이 곁에 있어 든든하지만 이 다음의 '노년의 나'를 은근히 '내 나중'을 걱정하는 것은 아닐는지...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보스톤코리아

KOREAN GUIDE & MAP

보스톤 가이드 앤 맵



이제 미국과 중국 고객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이 곧 출간됩니다. 이 가이드 앤 맵은 미국 및 중국 학생, 관광객 등을 타겟으로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등에 전격 배포될 예정입니다.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내년 2월 발간하여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되는 가이드 앤 맵은 여러분의 매출을 한단계 높여드릴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선정하는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의 베스트 업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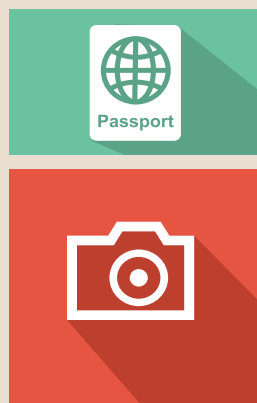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안 고객들을 한국 업소로 불러들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선택이 내년 매출을 좌우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당신의 2015년도 메디케어 준비는 되었나요?

요즘은 메디케어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혹은 메디케어 헬스플랜)와 파트 D (처방약보험)를 바꾸거나, 신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은 지난 10월 15일부터 시작되었고, 12월 7일에 끝난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15년도 파트 C의 평균 월보험료는 \$33.90이며, 파트 D는 \$32이다. 2010년 오바마케어입법 덕분에 파트 C의 가입자 수는 42%가 늘어 1천6백만이 되고, 보험료는 6%가 떨어졌다. 또한 파트 D의 도넛 홀(다음 회에 자세한 설명 예정)의 가입자 부담이 줄게 되어, 이제까지 8백만 가입자가 120억불의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가입과 변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년 중 허용되지 않아 이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보험을 검토하여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본인의 건강상태가 바뀌어 새로운 처방약, 혹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는 보험규정 혹은 보험료가 바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주치의나 병원이 가입 보험회사를 바꾸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되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



라고, 자동으로 현 보험이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지속한다.

검토를 돕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달에 메디케어 가입자 모두에게 “Medicare & You, 2015” 라는 책자를 우송하였다. (사진은 책자의 표지임)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보험을 선정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살펴 보아야 한다. 즉 보험료와 디덕터블의 부담정도, 자신이 필요한 치료의 포함 여부, 주치의나 병원이 가입된 보험 여부, 자주 쓰는 약이 보험회사의 처방약목록인 formulary에 들어 있는 지, 교통 등의 편리함이라고 하겠다.

MA 주에서 살 수 있는 파트 C 보험은 위의 책자 148 페이지부터 148j 까지에 잘 기술되어 있다. 이들 보험은 현 가입자의 87% 이상이 만족하는 양질이라고 하겠다. 주의할 점은 보험마다 판매되는 카운티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 파트 C 보험은 파트 D도 포함하고 있어, 파트 D를 별도로 구매 할 것

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파트 D 보험은 페이지 151부터 페이지 151C에 있다. 파트 A와 파트 B를 갖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파트 D를 구매하기 어려우면, 정부의 “Extra Help”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14년도 소득 상한액은 싱글은 \$17,505 부부는 \$23,595 이다. 신청은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현재 파트 A와 파트 B만을 갖고 있는 오리지날 메디케어로만으로도 만족해 한다면 가입기간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파트 D와 대응하는 처방약 보험을, 예로 직장보험에서 주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만약 처방약 보험 없이 있다면, 나중에 가입하게 되면 평생 벌금을 물게 된다.

도움이 필요하면 거주지 타운의 시니어센터(Council on Aging)에 연락하여, SHINE 자원봉사자와 상의할 수 있다. 혹은 봉사회(508-740 9188)로 전화하기 바란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53 무예도보통지의 마상육기馬上六技(3)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편추鞭笞(채찍과 허수아비법)는 무과시험 과목의 하나로 중요한 과목이며 들어치는 자세를 갖추고 이것이 편곤의 그 자세와 같기 때문에 무예도보통지에 기록되어 있다. ‘속대전續大典’에 이르기를 “편추는 출마出馬 후 오른손으로 채찍을 잡고 뒤를 향하여 쳐들고, 또 양손으로 앞을 향하여 쳐들고, 그리고 좌우를 향하여 한 번씩 각각 휘둘러 매번 한번씩 친 후 갑자기 좌우로 한번씩 휘두른다. 여섯개의 허수아비는 서로 28보씩 거리를 두고 좌우로는 서로 마로馬路로부터 3보씩 거리를 둔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금(정조 당시를 말한다)의 마상연가봉馬上連枷棒은 보병들이 사용했던 연가봉보다 조금 짧으며 연결고리는 보병용이 하나고 기병용은 3개이다. 모두 봉 머리 및 도리개(枷)의 양끝은 철엽으로 집계를 만들고, 오직 마상연가봉만이 도리개의 하단을 철엽으로 대고 쇠못을 두루 쳐놓아서 찌꼭지가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다. ‘예기도식禮記圖式’에 실려 있는 것은 여섯 고리가 서로 이어져 있고, ‘무비지’에 실려 있는 것은 도리개가 네모지고 쇠고리가 연이어져 길이가 도리개와 같다.

그런데 이 무기는 병자호란 때부터 정조 당시까지 많이 사용했던 무기였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유용하게 전장에서 쓸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무예도보통지에서는 이 편곤이 개조되

면서 실용성이 없었음을 말하는 대목도 있으며, 실제 전장에서 패한 경우와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도리개의 길이가 보의 3분의 2로 줄어든 지금 사용하는 것은 쇠고리가 너무 짧아 전력을 다할 수 없다. 일찍이 들으니 병자호란 때 금군이 고양대로에서 적을 방어하는데 일격에 봉자루가 꺾이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는 대개 쇠고리가 너무 짧은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루가 약하기 때문이다. 마땅히 그 체제를 바르게 하고, 그 자루의 둘레는 차이가 있게 하고, 큰고리 여섯 연결고리의 도리개는 네모난 도리개 철엽에 찌꼭지 같은 못을 친즉, 여러 가지 장점을 모아야 최상의 공격무기가 될 것이다.

병자호란의 항복으로 청나라에 볼모로 갔던 봉림대군은 누구보다도 청나라에 한이 맺혀있었다. 후일 귀국하여 왕위(효종)에 오른 그는 오랑개의 나라 청을 치기 위해 북벌계획을 세웠다. 이 북벌정책의 핵심인물이 문신으로 송시열이고 무신으로는 이완李完이었다. 이완은 인조반정의 공신이자 무신인 이수일(계림부원군)의 아들이다. 그는 무과에 급제하여 포도대장과 훈련대장 등의 무관직과 한성 판윤, 공조, 형조, 우의정 등의 문무를 겸비한 신하로 현종대 까지 봉직하였다. 그는 장수로써 담력이 대단하였다. 그가 부친의 고향인 음성에서 성장기를 보내면서 생긴 그에 관하

여 전하는 일화를 보면 그의 담력이 태산 같았음이 보인다. 하루는 밤에 밖에 나가서 뒤를 보고 있는데 그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개를 호랑이가 물어 갔다. 개의 비명소리에 집안 사람들이 뛰쳐나와 무슨일이냐고 하니 호랑이가 개를 물어갔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눈앞에서 호랑이가 개를 물어가는데 그렇게 태연하냐고 물으니, “호랑이는 이미 달아났고 소리를 지른다고 개가 돌아 오는 것도 아니고, 물어진 개를 다 먹을 때까지는 호랑이도 오지 않을텐데 왜 보던 뒤를 그만두겠습니까?”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여름날 정자 나무 밑에서 벼들과 낫잠을 자는데 몹시 불편하여 눈을 떠보니 큰 구렁이가 자신의 아랫배를 타고 넘어가고 있었다. 뱀이 다 지나간 뒤에 옆에서 자는 친구들을 깨워 뱀 얘기를 했다. “구렁이가 나를 나무 등걸로 알고 넘어갔네.” 사색이 된 친구들은 “이 사람이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그놈이 나를 나무 등걸로 알고 넘어가는 이상나도 그런양 있어야 무사하지 않겠나.” 이런 식의 그의 담력을 보여주는 일화는 다수가 전한다. 효종의 북벌정책, 즉 오랑개의 나라 청을 쳐서 명나라에 보답하겠다는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효종의 군비는 후대의 경제를 좀더 윤택하게 했다는 평가도 있다.



15TH ANNIVERSARY REUNION CONCERT



Newark, New Jersey

SUN. NOVEMBER 9, 2014 8PM PRUDENTIAL CENTER

Los Angeles

FRI. NOVEMBER 7, 2014 8PM STAPLES CENTER

뉴저지 뉴왁 공연 | **교차로** 뉴욕 교차로 신문사
티켓 판매처 | **Tel. 718-460-0114**

티켓 가격 \$54.75 | \$74.75 | \$94.75 | \$124.75 | \$154.75 | \$184.75 | \$204.75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베이비부머와 양극화 현상

‘베이비부머 세대’ (Baby-Boomer Generation)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흔히 말해 ‘베이비부머 세대’ 라고 하는데 그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무려 미국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하지만 점점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저출산율로 인한 극심한 고령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앞으로 이런 추세는 20년 이상 지속될 경우 미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바뀌면서 노인인구 한 명을 사회가 책임지기 위해 다섯 명의 젊은 사람들의 인적자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사회적인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소셜시큐리티 펀드가 고갈되기 시작했고 점점 더 그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올 초 소셜시큐리티사무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오는 2033년부터는 전체 혜택의 77%만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며, 조만간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세금을 올리려는 정부의 시도와 함께 이 사회는 갈수록 양극화 현상이 깊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까? 오늘은 그에 대한 해답을 알아보고자 한다.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첫째, 여전히 정부를 신뢰하고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을 기대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갑자기 망하거나 무책임하게 각종 혜택을 일시에 폐지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앞

서 설명했듯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극빈자층과 부유층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중산층의 혜택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둘째, 직장을 통해 평생인컴을 보장 받는 방법.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은퇴플랜은 “Pension” 이라는 연금플랜이었다. 하지만 지난 20년동안 펜션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더 이상 종업원들에게 연금을 지불할 능력이 못돼 과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2006년 미국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 GM이 무려 310억 달러의 종업원 연금을 부채 상환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종업원들에게 돌린 것이다. 회사의 매출은 급감하면서 종업원들의 의료혜택과 연금혜택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단순히 GM 문제만이 아니었다. 실제

로 지난 1985년도에 미국 전체에서 펜션을 보장해주는 기업 숫자가 11만 4,396개에서 지난 2003년 2만9,512개로 크게 줄었다. 대신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401(k)로 은퇴플랜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 이상 기업이 종업원에게 평생 연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능력에 맞춰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잘 관리해서 은퇴할 때 찾아 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여러 이유로 하지 못하거나 아예 직장에서 플랜자체가 없는 경우도 흔하다.

셋째, 자식들에게 은퇴자금을 도움 받는 방법. 평생을 지극정성으로 키워 준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점점 더 심각해지는 양극화 현상으로 자식들마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오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넷째, 각종 IRA, ROTHIRA 등 여러 가지 플랜을 사용해 개인적으로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아마도 앞으로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개인적 은퇴플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정부나 기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점점 더 줄어들거나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어려워진다면 남은 것은 단 하나, 스스로 준비하는 방법 밖에 없다.

내가 오늘 베이비부머와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 한 이유는 앞으로에 부동산 마켓에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어서다. 앞으로 5년간은 베이비부머들이 살아야 하는 주택 수요로 부동산 값은 올라갈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낮은 융자도 한 몫을 할 것이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보스톤엔 보스톤 **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티보 개학기념 **학생할인**

폭탄세일!

\$14.99

(2년 약정시)

학생 할인

2014년 9월5일-10월31일까지
보스톤 코리아 티보가
학생 여러분께 BIG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규가격 : \$34.99

1.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14.99(2년 약정시)

2.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니어 할인(65세이상)
\$24.99(2년 약정시)

3. 티보 런칭기념 특별할인 연장!

10월 31일까지
\$39.99 상품 개통으로부터 3개월간
월 \$9.99으로 가격인하
(2년 약정시, 3개월 후 \$34.99로 과금)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617.650.6656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양도소득세

한국법인 주식의 양도

미국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는 보유하고 있는 한국법인의 주식에서 매년 배당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양도할 예정인데,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의 세금 문제가 궁금합니다.

이번주는 미국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세금문제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①주식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문제와 ②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성격이 달라 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1. 배당소득의 과세

먼저 보유중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과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국에서의 과세

미국거주자가 한국의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미조세조약 제 12조(배당)' 와 한국세법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한미조세조약 제12조' 를 보면 한국정부는 미국거주자가 한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총배당금액의 15%(제한세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소득세법은 한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자는 일정기간 동안 배당소득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위의 한미조세조약 12조와 한국세법을 종합하면, 김 한국씨는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금액의 15%(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를 한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배당소득감면 면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국내세법의 세율을 적용후 감면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미국에서의 과세

미국의 거주자는 전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미국거주자인 김 한국씨는 한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미국세법에 따라 다음해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한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다음으로 주식양도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국에서의 과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한국에서 과세여부 또한 한미조세조약과 한국세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양도소득과 관련한 '한미조세조약 제 16조(양도소득)' 를 보면, 미국 거주자가 한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주식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을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 개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며, 미국거주자가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부동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됩니다(한-미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인 Announcement 2001-34,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합의(IRB 2001-16, ' 2001. 4. 16)).

한편 한국세법은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25% 미만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위의 김 한국씨의 경우 주식을 양도한 해의 한국 체재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체재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이 때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한국세법을 따르게 되는데, 주식을 양도한 비거주자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중 적은 금액(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별도납부)을 완납적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미국에서의 과세

한편, 미국거주자인 김 한국씨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납부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미국세법에 따라 미국에 주식양도와 관련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만약 한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일정 한도 내에서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은 주식양도소득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 등의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한미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주식과는 달리 소득원천지국(즉, 한국의 부동산 주식의 경우 한국)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사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53)

성공을 원하신다면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한 대로 현실이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비판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고 포스 잡지에서 말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1만 번 이상 반복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된다." 고 아메리카 인디언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고 말합니다. 실패로 이어지는 말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불가능하다! (It's impossible!)

성공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말을 모릅니다. 성공한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 해법을 기어이 찾아냅니다.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기에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갑니다.

상관하지 않는다! (I don't care!)

성공하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에겐 "하는 일이 지겹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열정과 꿈이 있다면 어떠한 난

관도 헤쳐나갑니다.

질문 그만해! (Stop asking questions!)

현명한 사람에겐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없다면 알고자 하는 뜻이 없는 것입니다.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많은 질문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왜?", "왜 그렇지 않은가?", "만일에 ~?"

왜 내가 해야 하는가? (Why should I be the one doing this?)

혼자 운용하는 자영업이나 많은 직원이 있는 회사나 성장하는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 임무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이건 내 일이 아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기회에 더욱 열심히 일합니다.

오랫동안 해 오던 방식을 변경하지 마시다. (I don't think we should change the way do things.)

미래를 보는 사람은 해 오던 방식

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집니다. 호과적인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높은 임금과 자동차가 대중화된 이유는 헨리 포드의 새로운 대량생산 컨베이어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실패를 한다면? (But what if we fail?)

모든 비즈니스는 실패를 동반됩니다. 이 세상에 100% 보장되는 일은 없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10,000을 시도했습니다. 제임스 다이스는 주머니 없는 진공청소기를 만들기 위해서 5,126 번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이들에겐 실패는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실패할 수 있다는 마음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고맙지만, 평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Thanks you, but I am not looking for any feedback.)

새로운 경험,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을 시도해 봅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갑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남의 관점과 평가가 중요합니다. 솔직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자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더 잘 안다! (I know better!)

혼자서 전부를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성공한 사람 뒤에는 현명한 팀이 있습니다. 야구, 축구, 등 뿐만이 아니라 권투 선수도 팀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원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잘 낫다"는 마음을 가지면 현명한 조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의 경험, 지식, 믿음, 등이 성공의 지름길로 인도합니다. 응원하는 가족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것은 너무 어렵다! (But that's just too hard!)

시작부터 어렵다고 포기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고 익

숙한 길을 떠나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열정과 노력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갈 때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성공하는 현실을 만들고 싶다면, 당신의 말을 성공의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성공의 말은 꿈을 말합니다. 마음에 품은 꿈을 입으로 말할 때,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꿈이 부끄러워서 혹은 자신이 없어서 말하지 못하면 꿈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꿈을 말로 시인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말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게 되며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2012 뉴스코리아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새미치과 특별할인

새미의 이벤트	오스템 임플란트 -150만원 120만원	무삭제 라미네이트 -80만원 60만원	오스템 미백 1회 20만원 +1회 제공
---------	-----------------------------	----------------------------	-----------------------------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받으세요!

대표원장 이두형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동서대학 치과 과장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외임교수
-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영회원

새미치과 임플란트 치아미백 치주치료 심미보철 예방치료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에피끄 에스테틱 특별할인

에피끄 에스테틱이 특별한 이유!

- 럭셔리 인테리어와 고급관리
- 1:1 전문관리와 프라이빗 룸
- 동안 미스 스킨 케어 마사지
- 이태리 최상의 브랜드 사용
-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관리사

스페셜 힐링 케어 - Facial care + Healing back care - 120 min 19만원 → 15만원	스페셜 힐링 스칼프 케어 - Healing scalp care + Facial care - 120 min 20만원 → 16만원	스페셜 슬리밍 케어 - Facial care + Slimming leg care - 120 min 25만원 → 20만원
전신 홀리스틱 아로마 케어 - 아로마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32만원 → 26만원	전신 고주파 케어 - 고주파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38만원 → 30만원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이 있다. 에피끄만의 특별한 관리로 시간의 흐름을 잠시 멈춰보세요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휴람 특별가 정밀검진을 통해 당신의 비뇨기를 점검해보세요

배뇨장애 + 발기장애 + 갱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만원 → 80만원

남성&여성 비뇨기과 수술전문병원
한국 성과학 연구소 운영

주요수술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 성기확대술,
조루수술, 요실금수술, 질성형술,
정관수술, 정관복원술 등

이윤수 & 조성완 비뇨기과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안면 윤곽술, 안면 거상술, 윤곽, 리프팅을 잘하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얼굴) -700만원 400만원	안면거상술 (목 포함) -800만원 500만원	실루엣 리프트 -300만원 200만원
안면윤곽술 (광대) -450만원 350만원	안면윤곽술 (사각턱) -450만원 350만원	안면윤곽술 (턱끝) -450만원 350만원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583-2993

행사기간 2014년 8월 ~ 11월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학교마다 다른 입학 사정관제

1시간에 걸쳐 하버드에 어울리는 학생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며, 다수결 투표에 의해 당락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기본적으로는 학업성적, 리더십, 특별활동 등의 여러 영역에서 우수한(well-rounded) 학생들을 선호하지만, 학업이나 특정 과외 활동에서 특별한 열정을 보이는 학생, 혹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적극적인 리더십이 강한 학생(well-lopsided) 등을 합격 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외에도 하버드 졸업생이 진행하는 인터뷰를 중요하게 반영하거나, 운동부 코치 등의 적극적인 스카우트(recruitment)가 있는 경우도 있다.

특정 기준을 요구하기보다는 다양한 기준을 두루 보는 하버드와 다르게 스탠포드 대학은 지원 학생을 평가하는 수준이 존재한다. 우선 1-2명의 입학 사정관이 관찰지역별로 지원 학생의 입학 서류를 검토한다. 학생들을 지역에 따라 나누는 것은 어느 학교 출신인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립이나 공립학교를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원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AP 수업을 몇 개나 이수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학생들의 순위를 결정하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같은 학교 출신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학업 능력(내신 성적, 교과목 선택, 표준 시험 점수 등)을 먼저 평가 한 후에 학생이 공부했던 배경이나 특정 과목에 대한 열정 등의 다른 특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입학

위원회(admission committee)에 소속된 입학 사정관은 22명 정도지만 모든 입학 사정관이 모든 지원 학생의 서류를 검토하지는 않는다. 만약 한 학생을 평가한 사정관들의 의견이 많이 다를 경우 2차 위원회를 구성한다. 예를 들자면, 당락을 결정하는 사정관이 두 명이고, 학생에 대한 평가 점수가 크게 차이 나는 경우에는 제 3의, 새로운 사정관이 평가한 점수를 더 가까운 점수와 합산한다.

신입생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버드(34,295명)나 스탠포드(42,167명)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지원자들을 평가해야 하는 UC Berkeley(73,711명)의 경우, 전임 입학 사정관으로 근무하는 33명 외에도 버클리 입학 사정 교육을 거친 외부 리더(External Reader) 70명 정도가 입학사정 과정에 참여한다. 모든 학생들은 교과목 선택과 내신 성적 등의 학업 능력은 물론, 리더십, 인성, 지원 동기, 책임감,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의 개인 자질, 그리고 지적, 문화적 열정과 자질 등이 모두 한꺼번에 평가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입시 정책에 따라 교사 추천서 등 학생 스스로가 아닌 타인이 평가하는 항목은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 심지어 고등학교 내신과 시험 성적도 학생 스스로 작성해서 제출하며, 합격 후 등록한 학생에 한해서 공식 내신 성적표와 대조를 해본다. 특히 학생의 자기소개서, 에세이 등을 통해서 자질이나 잠재력을 평가하며 실질적인 학업 성취도-예를 들

어, SAT 2300 점-보다 특별한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적 단점을 극복하고, 버클리에서 받은 교육을 통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학생을 우선시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외부 리더를 포함한 각 평가자는 최종 합격 여부를 최고 점수인 1부터 최저 5까지의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 점수가 1점 이상 차이 날 경우 선임 사정관(Senior admission officer)에게 재평가 된다. 주(State)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인 만큼 학생들을 평가하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There is no formula for gaining admission: 입학 허가를 받는 공식은 없다"를 검색해보면 이 격언의 원조(?)인 Harvard를 필두로, Princeton, Boston College, UCLA, Claremont McKenna, Berkeley 등의 수많은 학교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같은 말을 써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이나 코넬 대학의 건축학과와 같이 전공 교수가 진행하는 인터뷰가 요구되는 학교도 있듯이 학교마다 이상적인 합격생을 선발하는 과정은 모두 다르다. 결국, 내가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조사하고, 그만큼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은 학생의 몫이다.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 6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아카데미 분야에서 하버드 대학 입학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많은 학생들이 AP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AP 과목을 수강하지도 않고 AP 시험만 보거나, 필요한 기초 지식을 썬머나 선행 학습을 통해서 습득한 후 특정 정규 과목의 코스를 통과(Skip)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래서 명문 대학에 입학한 많은 학생들이 기본 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며 정작 대학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부득이 별도의 추가 시간을 할애하여 개인 과외를 받아 보충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는 아카데미 경고를 받고 퇴학 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명문 대학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명문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무리한 준비와, 미국 각 대학에 대한 정확한 아카데미 특징을 인지하지 못하고 명성만 보고 지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다. 도전적인 아카데미 과목 선정이 대학 진학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너무 인위적인 목적보다는 균형과 깊이가 함께하는 코스 선정이야말로 해당 대학 입학 사정관들에게 더욱 강하게 호소(Appeal) 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영어 문학: English Literature〉

모든 학생들이 12학년까지 일정 레벨에서 영어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학생들의 개인 실력과 학교마다의 프로그램에 따라 선정 코스

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고등학교 영어 교육과정은 세계문학, 영국문학, 미국문학 등의 문학 공부를 하면서 아울러 다양한 소설가, 시인, 극작가 등의 작품을 비평적, 분석적인 시각에서 연구하며 공부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버드 대학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코스 수강을 선호한다. 대학에서 기대하는 고등학교 영어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있는 분야의 책들을 읽고 어떤 문제(Matter)와 방식(Manner)들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또한 독서 자체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한 작가의 많은 글들을 수업 교재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한 두권의 책만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다. 만약 특정 작가의 글을 여러 권 읽을 수 있다면 작가의 내면 세계와 성숙도, 시대적 배경, 작품의 완성도 및 비평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즉 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문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고, 보다 많은 책을 읽게 될 것이다. 이는 말하는 것이 듣는 것을 모델로 한다면,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많은 독서량을 통해서 나온다는 말과 상통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학교 신문사, Debate/Speech 클럽 회원의 자격 만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대학에 보여주기에 충분하지 않다. 학교 영어 수업시간에 본

인이 얼마나 깊이 있는 지식과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교외활동과 병행한다면 최고의 입시 준비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하버드에 진학한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 11 또는 12학년 동안 AP 영어 언어 영역과 문학영역에서 적어도 하나 정도의 AP점수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AP 과목 수강과 점수가 필요하다.

〈외국어 : Foreign Language〉

모든 고등학교가 적어도 외국어 하나 정도는 2~3년 동안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학교마다 외국어 과목 관련 졸업 이수 학점에 대한 정책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적어도 3년 정도는 수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명문 대학들도 동일한 외국어를 적어도 3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수강할 것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다.

미국이 2050년 정도가 되면 백인들이 역으로 소수 민족이 되고, 타 민족들이 주된 인종이 되기 때문에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영어 이외에 할 수 있는 외국어에 대한 부분을 대학 원서에 표시하게 하고,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들에게 대학 졸업 이수 학점으로 외국어 과목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외국어와 관련된 썬머나 교환 학생 프로그램 참여가 많 아지고 있다.

대학이 유창하게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학

생들을 적어도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나라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 그 언어로 된 잡지, 소설, 영화, 연극등을 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간주한다. 미국이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국가로 지속적으로 자리매김 하려 하기 때문에 외국어 구사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외국어 수강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첫째, 하나의 외국어를 4년간 지속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스페인어 3년, 불어 1년 수강보다 4년의 스페인어를 최고 레벨 이상까지 수강하는 것을 대학은 선호한다.

둘째,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1년을 휴학(Year off)하지 마라. 모든 공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아카데미 분야의 깊이와 연구가 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 하나를 위해 다른 네 과목들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물론 1년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외국어와 다른 과목들을 쉬지 않고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한다. 대표적인 교환 학생 프로그램은 www.sya.org 이다.

셋째, 특정 외국어에 능통했다고 더 이상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하다면 또 다른 외국어를 배우려고 시도한다면 하버드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에서 학생을 평가한다.

넷째, Native Language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을 새로운 외국어에 능통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음 호에 계속)

www.pospay24.com



POWERED BY
WorldPayTM
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of

POSPay



 Leaf

무료기계(2중계약 없음)

One Touch Solution POS
24시간 이내 입금

모바일페이 (iPhone, Android)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10,000 매매가격 \$39,000

동양 그로서리, 연매상 \$415,000 다운타운 보스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100,000

보스톤 남쪽 아이스크림, 연매상 \$400,000 프랜차이즈

보스톤 고급 몰 커스텀주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보스톤 남쪽 피자/델리/한식 성장가능성 많음. 연매상 \$330,000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북쪽 주유소+컨비니언스 (2 비즈니스), 연매상 \$1.4M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훌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140,000 Wash & Fold 많음 소유자 은퇴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 최고 에세이 편집자
-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SAT I,II 주말 Intensive Class

SAT I Class

1. 대상: 시험을 앞둔 10,11,12학년

2. 특징:

- 실전문제풀이 중심으로 다가오는 시험대비 및 최종점검
- 종일 프로그램(9:00-5:00)
- 4주 단위로 상시 등록가능
- 실력있는 강사(영문학 박사로 본원에서 4년 강의중)

3. 수업일정

9:00- 9:30 단어테스트
9:30-11:30 class(reading/writing)
11:30-12:30 점심식사
12:30- 5:00 Full set 실전문제풀이

SAT II Math II C Class

- 다년간 경험의 공학박사 강사
-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강의

2014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일정: 11.22(토)~30(일)

(11.27일 추수감사절 당일은 휴강)

2. 프로그램 내용

- SAT I/SSAT/TOEFL Class(3명이상)
- SAT 2 Subject Test Prep (Math/Science/History/Language)
- All subjects for private tutoring
- National Contest Prep(AMC 10&12)

3. 프로그램 참가자의 숙식 및 교통편 알선

*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 www.bostonedu.org

아카데믹 프로그램

1. SAT 1,2 /AP/SSAT/TOEFL 및 전 학과목 개인수업 가능

- 학생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강의
-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 Skype수업 가능

2. Reading/Writing class

- 현직 영어교사 강의
- 다양한 장르의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
- 독서후 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향상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